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이 명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송 원 영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

이 명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송 원 영

dCollection @ sungshin

認　准　書

宋源英의 博士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dCollection @ sungshin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젊은층과 노년층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고, 각 자극물에 따라 월소득, 연령, 직업이 다르게 추론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준 실험방법이었으며, 실험설계는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제시하는 상반신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문항, 지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극물은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 헤어스타일을 달리한 젊은층의 지각대상자 자극물 24개(정장 수트 18개, 캐주얼웨어 6개)와 노년층 자극물 24개(정장 수트 18개, 캐주얼웨어 6개)로 총 48개의 칼라 사진으로 제작하였다. 인상평가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33개 항목으로 7점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여대생 635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분석,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사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단일표본 χ^2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 차원은 지성, 역능성, 온유성,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의 6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안경 착용 시 지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온유성은 낮게 나타났다.

dCollection @ sungshin

남색 넥타이는 지성이, 빨강색 넥타이는 지성, 역능성, 진취성이, 노타이 차림은 진취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일반형 헤어스타일은 지성이 높았고,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은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금속테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역능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뿔테는 노타이 차림이었을 때 진취성과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은 빨강색 넥타이와 함께 착용했을 때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셋째,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와 헤어색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안경과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지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으며, 회색 머리는 검정색 머리보다 지성, 역능성, 매력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노타이 차림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온유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남성의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젊은층 남성의 야구모자, 클로시 착용은 역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야구모자의 경우에는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역능성, 진취성,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페도라, 베레를 착용한 경우, 지성, 온유성,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이 중 페도라를 착용한 경우에는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상호작용효과에서 페도라는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베레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진취성과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다섯째,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월소득 및 연령 추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젊은층은 금속테를 착용했을 때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고, 노타이 차림이었을 때 더 젊게 추론되었으며, 일반형 헤어스타일이 스포츠형 헤어스타일보다 월소득과 연령이 모두 높게 추론되었다. 노년층의

dCollection @ sungshin

경우 안경을 착용했을 때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고,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에 더 젊게 추론되었다. 염색여부에 따른 연령효과는 안경 착용자가 안경 비착용자보다 2배 가량 더 크게 나타나 노년층이 안경을 착용하면서 검정색 머리로 염색하는 경우 연령이 낮게 지각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노년층 남성이 베레를 착용했을 때 월소득이 낮게 추론되었다.

여섯째, 남성 외모에 따른 직업 추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젊은층이 정장을 입고 금속테 안경과 일반형 헤어스타일을 하였을 때 전문/고위직 및 일반사무직으로 추론되었고, 안경을 쓰지 않고 빨강색 넥타이와 함께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을 하였을 때 서비스직으로 추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이 정장을 입고 안경과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회색 머리를 하였을 때 전문/고위직으로 추론되었고, 캐주얼웨어를 입고 회색 머리에 클로시를 착용하였을 때 타자극물에 비해 무직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젊은층과 노년층 모두 야구모자는 기능/노무직을 연상시키는 단서였다.

일곱째, 남성의 외모가 지성, 역능성, 온유성, 진취성, 현시성이 높을수록 지각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이 중, 젊은층 남성 옷차림에서는 지성적인 이미지가, 노년층 남성 옷차림에서는 온유한 이미지가 더 선호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안경을 착용한 경우 젊은층과 노년층의 지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젊은층은 노타이 차림이 더 젊게 지각된 반면, 노년층은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더 젊게 지각되었다. 젊은층의 목걸이 착용은 역능성, 진취성, 현시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직업추론은 서비스직으로 평가되었다. 노년층이 페도라 및 베레를 착용하였을 때 지성, 온유성, 현시성이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페도라 착용 시에는 남색 넥타이를, 베레에는 빨강색 넥

dCollection @ sungshin

타이를, 모자를 쓰지 않을 때는 노타이 차림이 더 진취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지각되었다. 노년층의 회색 머리는 옷차림에 관계없이 검정색 머리보다 지성,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노년층이 안경을 착용하면서 검정색 머리로 염색하는 경우 연령이 젊게 지각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또한 노년층이 안경과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회색 머리를 하였을 때 전문/고위직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은 남성 정장 및 캐주얼 착용자의 인상형성 과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외적 단서로 액세서리의 착용여부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상형성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남성의 연령별 추구 이미지와 외모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둔다. 또한 같은 의복과 액세서리의 착용에서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인상평가가 달리 나타났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별 옷차림 선호도, 액세서리 디자인과 색의 변화 등을 고려한 액세서리 착용효과와 그 연출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각자의 인지적 관점에 따라 같은 대상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으므로 지각자의 다양한 인구통계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dCollection @ sungshin

목 차

논 문 개 요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1

2. 연구의 목적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대인지각 이론 ····· 6

1) 인상형성 이론 ····· 7

2) 내현성격 이론 ····· 9

2. 액세서리 착용과 이미지 연구 ····· 11

1) 기능적 액세서리 ····· 12

2) 장식적 액세서리 ····· 31

3.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 ····· 35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42

1. 연구문제 ····· 42

2. 측정도구 개발 ····· 43

1) 자극물 ····· 43

2) 질문지 ····· 53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 54

dCollection @ sungshin

Ⅳ. 연구결과 및 논의 ····· 56
1. 남성의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요인분석 ····· 56
2.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 59
3.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색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 72
4. 남성의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 및
헤어색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 80
5. 남성의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 ····· 86
6. 남성 자극물에 대한 직업 추론의 차이 ····· 96
7. 남성의 이미지 특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 102

Ⅴ. 결론 및 제언 ····· 10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dCollection @ sungshin

표 목 차

<표 1> 실험설계의 변인 조작 내용 ····· 44

<표 2> 연령별 정장 자극물의 변인 조작 내용 ····· 51

<표 3> 연령별 캐주얼 자극물의 변인 조작 내용 ····· 51

<표 4> 연구문제 측정방법 ····· 55

<표 5> 남성의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요인분석 ····· 57

<표 6>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 60

<표 7>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색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 73

<표 8> 젊은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 80

<표 9> 노년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헤어색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 82

<표 10> 노년층 남성의 넥타이, 정장용 모자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 83

<표 11>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 86

<표 12>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색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 ····· 87

<표 13> 젊은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 90

<표 14> 노년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헤어색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 ····· 91

<표 15> 노년층 남성의 넥타이, 정장용 모자 착용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 94

<표 16> 선호도 측정 문항 ····· 102

<표 17> 남성 옷차림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인상평가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103

dCollection @ sungshin

그 림 목 차

<그림 1> 한국 남성의 평균 얼굴 모형 ····· 48

<그림 2> 금속테, 뿔테, 목걸이 기초 자극물 ····· 49

<그림 3> 넥타이, 야구모자, 클로시, 중절모, 베레 기초 자극물 ····· 49

<그림 4> 젊은층과 노년층 남성 모델 ····· 52

<그림 5> 젊은층 남성의 역능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 62

<그림 6> 젊은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 63

<그림 7> 젊은층 남성의 현시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 64

<그림 8> 젊은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 65

<그림 9> 젊은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66

<그림 10> 젊은층 남성의 현시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67

<그림 11> 젊은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68

<그림 12> 젊은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헤어스타일과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의 상호작용효과 ····· 69

<그림 13> 젊은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 70

<그림 14> 노년층 남성의 온유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 74

<그림 15> 노년층 남성의 온유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의 상호작용효과 ····· 75

<그림 16> 노년층 남성의 온유성 평가에 대한 헤어색과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의 상호작용효과 ····· 76

<그림 17> 노년층 남성의 역능성 평가에 대한 안경, 넥타이,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 77

dCollection @ sungshin

<그림 18> 노년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안경, 넥타이,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 78
<그림 19> 노년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정장용 모자의 상호작용효과 ·· 84
<그림 20> 노년층 남성의 현시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정장용 모자의 상호작용효과 ·· 85
<그림 21> 노년층 남성의 월소득 추론에 대한 안경과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 89
<그림 22> 노년층 남성의 연령 추론에 대한 안경과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 89
<그림 23> 노년층 남성의 월소득 추론에 대한 캐주얼 모자와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 92
<그림 24> 노년층 남성의 연령 추론에 대한 캐주얼 모자와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 93
<그림 25> 노년층 남성의 월소득 추론에 대한 넥타이와 정장용 모자의 상호작용효과 ·· 95
<그림 26> 젊은층 정장 자극물에 대한 직업 추론 ····· 96
<그림 27> 젊은층 캐주얼 자극물에 대한 직업 추론 ····· 98
<그림 28> 노년층 정장 자극물에 대한 직업 추론 ····· 99
<그림 29> 노년층 캐주얼 자극물에 대한 직업 추론 ····· 100

dCollection @ sungshi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개인의 외모는 자신이 연출하고 싶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타인의 인상을 평가하는 비언어적 단서로의 상징적 역할을 한다. 얼굴, 체형, 의복,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표현되는 외모적 단서는 몸짓, 눈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통합되어 인상을 형성하고, 이같이 형성된 인상은 그 후에 오는 단서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외모 단서 중 액세서리는 특정 부분의 강조 및 조화를 통하여 착용자의 옷차림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외모 단서와 통합되어 이미지를 향상시키게 하므로 액세서리는 의복과 함께 인상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성(性)의 분화에 대한 남성들의 지배적인 문화 규범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남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의복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와 같은 외모 단서의 변화를 추구함으로 사회와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수행한다. 즉,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타인의 반응과 평가를 의식, 외모를 적극적인 사회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꽃미남 열풍,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경향과 맞물려 남성복의 다양화, 남성 전용 액세서리 판매, 남성 전용 화장품 광고 등

dCollection @ sungshin

으로 이어졌으며 특정 직업이나 연령을 불문한 전반적인 남성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 및 의식의 진화, 발전은 남성 패션 시장 규모의 대형화로 이어졌고, 의복과 함께 코디해야 하는 액세서리 시장 또한 2002년 이후 매년 7% 가량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박해영, 2008).

그러나 이러한 남성 액세서리 시장의 신장세와 외모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남성 인상형성 및 이미지 지각 연구는 주로 의복, 헤어스타일, 지각대상자의 상황, 지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이나 사회심리적 변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신소진, 1994; 이향미, 김재숙, 1998; 송선옥, 1999; 김현지, 2003; 강승희, 2005), 남성 액세서리 연구는 주로 넥타이에 관한 정도로 미비한 편이며 특히, 노령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액세서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2007, 김수봉), 노년층 남성은 사회생활에서의 연령 역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의복의 신체적 안락감뿐만 아니라 좋은 외모를 유지하기 원한다. 그들은 유행 감각이 표현되는 외모를 원하는 반면, 규범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유행을 추구하는 것은 꺼리는 성향이 있다. 또한 2010년대부터 고학력, 고소득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은퇴를 시작하고 동시에 연금이 수급되어 이들 노년층은 최대 단일 소비 주도층으로서 그 구매력이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2007, 김수봉) 이들의 성향과 구매력을 고려한 액세서리 관련 인상형성 연구 또한 필요하게 된다.

남성 패션에서 액세서리는 여성에 비해 그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착용 목적에 따라 기능적 액세서리와 장식적 액세서리로 구분된다. 기능적 액세

dCollection @ sungshin

서리는 안경, 모자, 넥타이, 가방, 구두, 장갑, 벨트 등이 있고, 장식적 액세서리에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등이 포함되는데(김영인 외, 2001), 본 연구에서는 인상형성 연구 특성상 얼굴 주변에 착용되어 지각 단서로 사용이 가능한 기능적 액세서리인 안경, 모자, 넥타이를 연구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안경은 자신의 이미지를 쉽게 바꾸어 주는 아이템 중 하나로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쉽게 구입하는 거의 유일한 패션 아이템이다(이건행, 2008). 더욱이 성인 남성의 안경 착용자의 수가 199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대한안경사협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8), 안경착용과 관련된 인상형성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므로 안경착용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은 더욱 의미있다 하겠다.

장식적 액세서리 중 목걸이는 얼굴에 근접 착용되고, 선행연구 결과 남성들이 가장 구입하기를 원하는 장식적 액세서리이며(이은희, 전경란, 2001), 또 남성들이 비교적 많이 소유하거나 실제로 착장 정도가 높은 액세서리였다(신주동, 최종명,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대표적인 장식적 액세서리인 목걸이를 연구 변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한편,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는 모두 얼굴 주변에 착용되는 액세서리이며, 정보가 부족한 낯선 얼굴일수록 눈, 코, 입과 같은 얼굴의 내부 단서보다 헤어스타일과 같은 얼굴 외부 단서가 인상평가 과정에서 더 의미있게 작용되므로(O'Donnell & Bruce, 2001), 헤어스타일도 함께 관련 변인으로 조사하였다.

남성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는 헤어의 형태, 질감, 길이, 색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선행되었고, 헤어스타일은 남성의 인상형성 과정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단서로 작용하였다(임남영, 강승희, 2003; 김재숙, 류지원, 2004; 유숙희, 2005; 하경연, 2006). 그러나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20

dCollection @ sungshin

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헤어스타일의 형태 변화 및 패션 염색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대상자를 젊은층과 노년층 남성으로 구분하여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노년 남성의 경우, 젊은층 남성에 비해 헤어스타일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고 유사한 반면, 탈모, 탈색으로 인한 변화가 더 크므로 젊은층은 헤어스타일의 형태 변화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노년층은 염색 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젊은층과 노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 각각의 지각대상자에 따라 월소득, 연령, 직업이 다르게 추론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의류학 분야에서 미약하게 다루어져 왔던 노년층 남성에 대한 연구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단서를 규명함으로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액세서리 분야 및 미용업계에 효율적인 정보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별 남성의 추구 이미지와 외모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고, 액세서리 구입 및 헤어스타일 선택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dCollection @ sungshin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을 대상으로 젊은층과 노년층의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를 포함한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고 각 자극물에 따라 월소득, 연령, 직업이 다르게 추론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남성의 인상형성의 차원을 밝힌다.
2)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연구한다.
3) 남성의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연구한다.
4) 남성의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를 연구한다.
5) 남성의 외모에 대한 직업 추론의 차이를 연구한다.
6) 남성의 이미지 특성이 지각자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dCollection @ sungshin

Ⅱ. 이론적 배경

1. 대인지각 이론

지각(perception)이란 인간이 사회환경 속에서 주어진 자극을 받아들여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 때 지각대상이 사람인 경우 대인지각이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을 보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느껴서 형성되는 인상을 뜻한다(이인자 외, 2001).

Kaiser(1985)는 지각자가 낯선 사람이나 낯선 사진을 처음 본 후, 주어진 정보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피부색, 체격, 의복스타일과 같은 가시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정서, 성격, 태도 등과 같은 내부 특성까지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얼굴 생김새, 체형, 헤어스타일, 의복, 액세서리와 같은 인간의 외모는 서로 친숙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감소되는 단서이지만 첫인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 중 하나로 착용자의 외적, 내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여 대인지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겠다. 또한 대인지각은 어떤 특정 단서를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어떻게 범주화하여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각자는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참조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를 형성하고 일방적(one-way)으로 타인을 판단하므로 특정 단서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기도 하기도 하고, 지각대상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임숙자 외, 2002). 즉, 대인지각은 제시된 단서와 지

dCollection @ sungshin

각자 고유의 추론 과정이 개제되어 다분히 개인적 영향이 크므로 대인지각에 관한 연구는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시 된다. 대인지각 이론 중 의복변인과 주로 관련되어 연구되는 이론은 인상형성 이론, 사회적 인지에 관련된 내현성격 이론 등이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상형성 이론

인상형성이란 타인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하고 일관성있는 특징을 찾아내어 이해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얼굴, 의복과 제스처, 자세와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 단서에 근거하여 인상을 형성한다(임숙자 외, 2002). 이 때, 지각자가 지각대상자와 상호 의존적이거나 판단 과정에서 자아관여를 느끼는 경우 신중을 기하려는 동기가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의 체계적 판단(systematic judgment)을 통해 인상을 형성한다. 반면, 지각대상자가 낯선 타인인 경우에는 소량의 정보와 선입견에 기초한 대략적 판단(snap judgments)을 통해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보통 눈에 잘 띄는 안경착용, 의복의 유형, 보석, 문신 등과 같은 외모 단서에 근거하여 첫인상을 형성한다(Weiten & Lloyd, 2006).

인상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의 핵심은 이러한 단편적인 외모 단서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는 대표적으로 총체적 접근 이론으로 설명되어진다.

총체적 접근 이론은 인상을 형성할 때 지각대상자가 지닌 각각의 특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며 서로 관계가 있는 전체로서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오세진 외, 2005). 즉, 한 특성의 의미는 그 사람의 다른 정보의 맥락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되어 같은 특성이라도 지각대상자의 다른 특성에 따

dCollection @ sungshin

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인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접근을 형태적 접근(gestalt approach)이라고도 한다.

이는 총체적 접근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Asch(1946)의 중심특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Asch는 한 집단의 피험자들에게 '지능이 높다, 재주가 있다, 근면하다, 온화하다, 단호하다, 실용주의적이다, 조심스럽다' 등의 특성을 가진 가상의 인물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하고, 다른 집단의 피험자들에게는 '온화하다' 대신 반대말인 '냉정하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제시한 후 인상을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온화하다'라고 한 경우는 그 사람을 관대하고, 유쾌하며, 인간적인 사람으로 평가하였던 반면, '냉정하다'라고 한 경우는 그 반대의 인상이 형성되었다. 즉, '온화하다-냉정하다'라는 형용사가 중심특질(center trait)로 부각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대상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고, 그 밖의 형용사는 주변특질이 되어 중심특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어 최종 인상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상형성이란 상대방의 복합적인 특질들을 통합하고 이해하여 단일된 인상을 얻는 과정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인상은 지각대상자의 중심특질과 주변특질들 사이의 관련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게슈탈트(gestalt)로 가정된다. 따라서 인상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게슈탈트인 전체로서의 외모는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의복과 같은 개별적인 단서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 또한 같은 특질이라도 어떤 중심특질과 어울려 있는가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되는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 단서들도 인상형성 과정에서 각각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통합된 이미지로서 인상형상의 심리적 효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dCollection @ sungshin

2) 내현성격 이론

타인에 대한 정보의 의미를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인지과정을 대인지각의 맥락에서 사회인지(social cognition)라고 하며 사회인지에는 두드러진 단서, 범주화, 도식, 내현성격 이론 등이 있다.

이 중, 내현성격 이론은 어떤 특질은 함께 가고, 어떤 특질은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일련의 지각된 성격 특질들 사이의 관계(a set of perceived trait relationships)에 관한 이론으로 어떤 특질들이 서로 어울리는지는 개인의 직관적인 생각을 통해 형성된다(강혜원, 1995). 즉, 성격 특질과 같은 개인의 속성들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각자는 이런 속성들이 상관되는 정도에 따라 추론적 관계를 만들어 일반화시킴으로서 지각대상자가 행동할 당시에는 직접 나타내지 않는 다른 특성들까지도 추리하여 성격의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현성격 이론의 체계는 각자가 갖는 성격판단의 기초가 되는 틀 혹은 신념이며, 개인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고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방향성을 가져 동일인에 대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체계는 문화적 통념, 사회적 규범과도 관련이 깊어(강봉규, 1999) 각 사회마다 '어떤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떠어떠한 성격 특성들도 함께 갖고 있다'는 식의 사회의 편견이나 고정관념과도 관련이 깊다. 내현성격이론의 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인지적 구조로 호의적, 비호의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김선 외, 1996), 과도하게 단순화된 이해를 조장할 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기도 한다(민윤기, 안권순, 2004). 예를 들어 안경을 쓴 여자는 통상적으로 지적이고 보수적이면서 신체적 매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거나(Hamid, 1968), 지능이 우수한 사람은 냉철하고 덜 감정적이며 내성

dCollection @ sungshin

적이라는 식으로 예상하는 것이다(김정희 외, 1993).

한편, 후광효과란 어떤 사람이 좋은 혹은 나쁜 특성을 가진 경우 다른 관련없는 특성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좋거나 나쁠 것이라고 가정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는 좋은 특성은 나쁜 특성보다 또 다른 좋은 특성과 그럴듯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내현성격이론이 반영된 것이다(김선 외, 1996).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 신체적 매력을 느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면, 신체적 매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오세진 외, 2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내현성격 이론이란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성격 특성의 인지적 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성들 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여 부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다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특성까지 추론하여 일반화시키는 성격 지각 이론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경험이나 신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과도 관련이 깊으며 후광효과의 작용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의류학 분야에서 내현성격 이론은 착용자의 의복을 통한 성격 추론 연구(고애란, 1990; 남미우, 1992; 이은미, 1992) 등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대부분 성격특성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요인분석 및 다차원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을 통하여 인상형성의 차원을 분석하고 각 차원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dCollection @ sungshin

2. 액세서리 착용과 이미지 연구

액세서리란 복장을 갖추기 위한 '부속품', '보조품'의 의미로 신체부분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끼는 장식품을 말하며(이경손, 김희섭, 2000), 옷차림 시 전체적인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평범한 의복에 액센트를 줌으로써 의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이현숙, 이정숙, 2002). 또한 액세서리는 그 조합에 따라 같은 의복이라도 그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Feldon(2002)은 똑같은 민소매의 심플하고 짧은 시스 드레스를 입더라도 적당한 맞음새에 클래식한 펌프스(pumps)를 신고 진주목걸이를 걸쳤을 때와 타이트한 맞음새에 그물 스타킹(fishnet stocking), 스파이크 힐(spike heel)을 신었을 때 그 의복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즉, 착용자는 의복에 어울리는 액세서리의 선택과 사용여하에 따라 '지성적인', '섹시한', '클래식한', '캐주얼한' 등 자신이 연출하고자 하는 특정 이미지를 표현, 강조하고 차별화된 미의식을 추구하여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액세서리는 그 목적에 따라 안경, 모자, 넥타이, 스카프, 가방, 구두, 장갑, 벨트와 같이 실용성 및 기능성이 강조된 것과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반지 등과 같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적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장식적인 액세서리로 나뉜다(김영인 외, 2001). 이 중 남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는 남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제약으로 여성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으나, 남성들의 패션 의식이 진화, 발전하면서 최근 남성 액세서리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박수호, 2008).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액세서리로 안경, 넥타이, 모자를, 장식적 액세서리로는 목걸이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dCollection @ sungshin

1) 기능적 액세서리

(1) 안경 착용과 이미지

가. 안경 착용

TV와 컴퓨터에 의한 전자파의 영향과 온라인상의 게임이나 채팅의 증가, 미세 먼지 증가 등의 환경조건의 악화는 눈의 피로를 야기시켜 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안경착용인구는 학령기 아동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1995년 이후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유승남, 2008).

성인 남녀 1502명, 초중고교생 758명을 대상으로 한 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08년 전국 안경착용률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47%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경착용률 조사를 처음 시작한 1987년 24.1%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남녀가 각각 57.6%, 57.4%로 안경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으며, 29세 이하 여자(59.8%)와 남자(52.6%), 30대 남자(39.4%)와 여자(37.5%), 40대 남녀(각각 31%) 순이었다. 또한 일반 안경과는 별개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돋보기 안경 착용률은 8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인의 안경교체주기는 '2년 이상 사용 후 교체'가 2002년 조사 시 41.5%, 2005년 조사 시 3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2008년 조사에서는 '1-2년 미만 사용 후 교체'의 비중이 38.5%로 가장 컸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경교체주기는 1년 미만에 교체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성인의 안경 교체주기와 비교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경테와 안경렌즈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서 성인의 11.7%가 '안경렌즈보다 안경테가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였고, '둘 다 중요하다'는 35%였으며, 40대 이상 연령층보다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안경테를 중시한다고 응답하였다(대한안경사협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2; 2005; 2008).

dCollection @ sungshin

조현국 외(2006)는 안경전문가(안경사)와 안경비전문가(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안경제품에 대한 평가와 브랜드 인지도, 일반적인 안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안경착용 용도는 67%가 시력교정용, 22.3%가 시력보호 목적으로 안경을 착용하였고 패션용은 10.7%이었다. 안경 소지 개수는 1개가 40.2%, 2개가 33.7%, 3개가 16.3%, 4개 이상이 9.8%로 과반수 이상이 2개 이상의 안경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패션용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많은 개수의 안경을 소유하고 안경교체주기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경사의 54.4%가 패션용으로서의 안경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국내 브랜드보다 해외 브랜드의 제품인지도가 더 높았으며, 소비자의 안경구입기준은 디자인, 품질상태, 착용감, 가격 순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브랜드와 해외브랜드의 차이점으로 디자인을 꼽아 장준영 외(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한국청년들의 안경착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김혜동(2007)은 20대 소비자의 안경구입기준으로 '헤어스타일과 얼굴형에 어울리는지 여부'라고 응답한 것과 안경 착용 시 '안경 흘러내림'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 향후 안경사들이 얼굴형에 따른 안경 코디 디자인 연구에 힘써야 하며, 광학적인 조건보다는 해부학적인 피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경착용인구의 증가와 교체주기의 변화는 안경수요에도 변화를 가져와 한 개인이 착용하는 안경의 수는 착용목적에 따라 2개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안경의 디자인'이나 '자신과 어울리는지 여부'와 같은 안경의 미적인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므로, 현대생활에서 안경은 시력보정, 보호와 같은 1차적 기능

dCollection @ sungshin

과 더불어 패션아이템 즉, 액세서리로서의 미적 기능 또한 충족시키는 중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나. 안경 착용 이미지 연구

안경은 눈의 전면에 드러나게 착용되어 시력보정과 보호, 더 나아가서는 액세서리로서 착용자의 패션성을 가미시키고 의복, 헤어스타일 등과 마찬가지로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안경테의 크기, 색상, 재질, 얼굴의 형태, 피부색 등 지각대상자의 외모단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신언모 외, 2002), 안경테의 재질에 따라 금, 은, 철 등의 금속 프레임은 예리한 인상을, 뿔 프레임은 부드럽고 지적인 인상을 주며, 디자인이 사각형에 가까울수록 학구적인 느낌을, 둥글수록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얼굴 형태에 따라 둥근 얼굴은 샤프하고 각이 진 프레임이, 각진 얼굴에는 둥근 느낌의 프레임이 어울리므로(안명숙, 장애란, 2002) 안경은 지각대상자의 결점을 보완하여 인상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경 착용으로 인한 인상형성은 지각대상자의 외모단서 뿐만 아니라 지각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되는 안경착용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이나 태도, 각자의 경험이나 정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정수정 외, 1999).

안경 렌즈의 물리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안경 연구는 안경착용률, 착용목적, 교체주기 등의 착용실태조사와 안경 구입기준 등의 구매행동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되어왔고, 이미지 관련 연구는 안경착용 여부에 따른 이미지 연구, 지각자의 고정관념과 얼굴인식 연구 등이 있으나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Argyle과 Mchenry(1971)는 안경 착용이 지적인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dCollection @ sungshin

발견했는데, 안경착용으로 인한 지적 효과는 5분 정도로 대화를 함과 동시에 사라진다고 하였다.

Hellström와 Tekle(1994)은 50대 남성의 안경, 모발, 수염의 유무에 따른 직업 및 인성 추론에 대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안경을 쓰지 않고 머리가 있고 턱수염과 콧수염이 없는 자극물은 세일즈맨으로, 안경을 쓰고 대머리이며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는 자극물은 교수로, 안경을 쓰지 않고 머리가 있으며 턱수염은 없고 콧수염이 있는 자극물은 아티스트로 추론되었다. 인성추론에 있어서 안경을 쓰고 대머리에 수염이 있는 자극물은 정직해 보이며 도움을 줄 것 같다고 평가되었고, 안경을 쓰지 않고 머리가 있으며 수염이 있는 자극물은 잘 생겨 보이고, 마음이 통할 것 같으며 남자답다고 평가되었다. 안경을 쓰고 대머리에 수염이 없는 자극물은 지적으로 보이고 리더쉽 있게 평가되었고, 안경을 쓰지 않고 대머리에 수염이 없는 자극물은 나쁜 쪽으로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erry와 Krantz(1993)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성의 안경과 수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안경과 턱수염은 정신적 능력에 대하여 반대의 결과를 보여 안경을 착용한 경우 읽기, 쓰기 같은 더욱 정신적 능력에 적합한 인상으로, 수염을 기른 경우 운동, 활동같은 육체적 능력에 적합한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Elman(199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특징과 남성성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안경을 쓴 남학생은 쓰지 않은 남학생보다 더 부드럽고 신사적이며 감수성이 있고 인기가 많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호작용효과는 '무뚝뚝한-감수성 있는', '용감한-겁이 많은', '소극적인-적극적인', '부드러운-거친', '온화한-온화하지 않은' 총 5가지 형용사쌍에서 보였다. 키가 작은 남학생은 안경을 썼을 때 쓰지 않았을 때보다 감수성이 있고, 겁이 많으며,

dCollection @ sungshin

소극적이고, 부드럽고, 온화하다고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여성적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학생은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사람에 비해 무뚝뚝하고, 용감하게 지각되어 남성적으로 인식되었다.

정수정 외(1999)는 20대 이상의 남녀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안경착용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였으며,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1은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안경이 인상을 날카롭게 만들어 안경 착용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여성 안경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을 이유로 콘택트렌즈나 레이저 수술을 선호하고 있었다. 유형2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안경이 시력을 향상시키고 인상을 부드럽게 하여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멋내기용으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인식하였고, 안경 착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사라지고 있으며, 콘텍트렌즈나 레이저 수술에 반대하였다. 유형3은 40대 안경 착용자의 비율이 높았고, 안경의 주된 목적이 시력보호에 있다고 보았으며, 안경을 벗었을 때의 인상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안경이 인상을 차갑게 보이게 한다는 측면에는 동의하였으나 유형1과는 대조적으로 콘텍트렌즈로의 전환이나 수술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3가지 유형은 공통적으로 안경이 안경 착용자들의 외모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보였고 가능한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Mitchell과 Robert(2004)는 웹(web)을 기반으로 한 안경, 독특성 및 얼굴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얼굴인식성과를 조사하였다. 총 96개(안경착용 48개/비착용 48개) 자극물을 제작한 후, 웹상에 접속한 관찰자에게 1차로 24개(안경착용 12개/비착용 12개) 자극물을 보여주고 시간이 다소 경과한 후, 2차로 48개의 자극물들을 무작위로 제시한 후 '이 얼굴을

dCollection @ sungshin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관찰자들은 실제로 그 얼굴을 본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답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안경비착용 얼굴보다 안경착용 얼굴을 더 많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안경을 착용한 얼굴들이 모두 안경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경비착용 얼굴들보다 서로 더 유사하게 인식된다고 해석하였고, 얼굴인식과정에서 안경은 혼돈을 주는 단서라고 하였다.

한편, 고정관념에 관련하여 Hamid(1968)는 잡지에 나온 여성 모습을 평가할 때 대학생들이 비슷한 고정관념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지적이고 종교적이며 관습적이고 상상력이 없으며 수줍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체적 매력과 세련됨에서도 낮게 평가되었다.

Kaiser(1985)는 타인의 외모 단서 중에서 안경의 착용은 지적 능력, 근면, 의존가능성, 금전문제에 있어서의 정직 등의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으며 덜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답다」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에서 한명숙, 하희정(2003)과 한명숙(2004)은 같은 자극물을 이용하여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안경이 '여자답다'에 대해서 여자대학생은 비교적 긍정의 평가를 한 반면, 남자대학생은 부정의 평가를 하였다. 안경이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에 대해서 여자대학생은 비교적 긍정의 평가를, 남자대학생은 중간정도의 평가를 하였으며, '여선생님답다'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긍정의 평가를 하였다. 또한 선글라스의 경우, '여자답다'와 '남자답다'에 남녀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양성성을 가진 아이템으로 평가되었는데,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와 관련하

dCollection @ sungshin

여 안경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자대학생보다 남자대학생에게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기능적 액세서리인 안경은 인상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외모 단서 중 하나로 착용자의 업무능력, 지적능력, 여성성과 남성성 평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지각자의 경험이나 사고, 가치관, 고정관념 등에 따라 안경 착용자의 인상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경 착용자의 '안경'은 하나의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여 안경 비착용자보다 얼굴 인식에 도움을 주지만, 안경 착용자들 간의 얼굴을 구별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2) 넥타이 착용과 이미지

가. 넥타이 착용

남성들에게 의복은 직접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보완해 주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의복은 경제적인 능력을 상징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직업까지 표현하여 착용자의 가치를 증대시켜 준다(Hurlock, 1976). 또한 이러한 의복의 역할은 직종별로 차이를 보여 기능직 종사자보다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무직 종사자들은 의복이 직장 내의 성취의 중요한 지침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Form & Stone, 1955).

남성 사무직 종사자들의 직장이나 공식석상에서의 대표적인 옷차림인 정장(suit)은 한 기업 내에서 공유된 문화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예의를 전달하는 상징으로 품위, 권위, 신뢰감과 동일시되어 왔다. 또한 그 스타일과 색상 등을 고려할 때, 남성복 중에서도 가장 불변성과 획일성이 강한

dCollection @ sungshin

의복이라 할 수 있다. 즉, 남성 정장색은 검정색, 회색, 감색 등으로 비교적 그 범위가 좁고 스타일 또한 다양하지 않으므로, 셔츠나 넥타이의 색상, 소재, 디자인의 변화가 가능한 양복 V존은 착용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 부분이 된다. 특히 넥타이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착용자의 지위, 신뢰도, 능력을 나타내어 시각적 이미지를 강하게 하고, 착용자의 개성을 연출하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한다(Molloy, 2005). 그러므로 양복착용 시 '어떤 넥타이를 착용하는지'는 정장 착용자의 인상형성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한편, IRI(image research institute) 색채 연구소에서 발행된 컬러 콤비네이션(color combination)에 따르면,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형태, 재질, 색상,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지각자가 특정 이미지를 인식할 때, 이미지의 70-80%를 색에 의해 인식하므로 이미지 구성요소 중 색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IRI 색채연구소, 2003). 또한 색의 상징성 및 연상에 의해 나타나는 색의 성격은 문화나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나타내는데, 빨강색은 태양, 불, 피, 용기를 연상케 하며 생명, 활동, 건강, 정열의 상징이고, 파랑색은 하늘, 바다, 청춘, 침착을 연상케 하며 희망을 상징한다(Davis, 1996)고 하였다.

의복에 있어서도 색채는 가장 두드러진 표현적 요소로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 데에 영향을 미쳐 복식디자인의 효과적 실현에 큰 의미를 차지한다. 남미우(1991)는 남성복에서 색이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소로 작용된다 하였고, 김윤경, 강경자(2003)는 색이 의복을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 중 복식의 미적 인식에서 가장 먼저 지각되는 요소라 하였으며,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로 지각되어 진출-후퇴, 팽창-수축, 한-난색에 관한 연상 및 감정의 작용, 색의 상징성 등의 심리적 현상에 의해서 인상형

dCollection @ sungshin

성 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나. 넥타이 착용 이미지 연구

의복에서의 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남성 의복색에 관한 이미지 지각 연구는 의복유형별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이은미, 1992; 남미우, 1994; 임지영, 1996; 이향미, 김재숙, 1998; 표유경, 2000; 김현지, 2003; 최유진, 2003; 강승희, 2005). 이 중, 넥타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넥타이의 색과 무늬, 톤에 관한 것으로 정장과 와이셔츠의 색, 지각대상자와 지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지각대상자의 사회심리적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남성정장 착용자의 인상형성 연구에서 이은미(1992)는 지각대상자의 연령을 청년과 중년으로 나누어 정장스타일, 정장색, 넥타이 색을 의복단서로 조합시키고, 지각자는 20대와 40-50대 남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년 착용자에 관한 평가에서 20대 관찰자는 정장과 유사색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개성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40 · 50대 관찰자는 대비색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청년 착용자에 관하여 40-50대 관찰자는 감색 정장 착용 시, 유사색 넥타이를 개성적이고 활동적으로 지각한 반면, 베이지색 정장 착용 시, 대비색 넥타이를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으로 평가하였다.

넥타이 무늬와 양복과의 배색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임지영(1996)은 능력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에는 감색 양복에 유사배색의 체크(check), 페이즐리(paisley), 스트라이프(stripe)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독특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베이지색 양복에 대비색의 추상무늬나 꽃무늬 넥타이를, 온유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베이지색 양복에 대비색 체크무늬나 꽃무늬, 추상무늬 넥타이를, 매력있는 이

dCollection @ sungshin

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감색 양복에 유사색 넥타이 혹은 베이지색 양복에 대비색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강경자, 임지영(1996)은 넥타이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추상무늬 넥타이는 매력성이 가장 높게 지각되었고, 감색 의복과 유사배색 넥타이의 경우와 베이지색 의복과 대비배색 넥타이의 경우에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의복색과 유사배색 넥타이의 경우 능력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대비배색 넥타이의 경우, 감색 의복이 베이지색 의복보다 능력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추상무늬 넥타이와 의복색과 대비배색 넥타이인 경우 독특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의복색이 베이지색인 모든 넥타이와 감색 의복과 대비색 넥타이의 경우 온유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최유진(2003)은 남성의 재킷, 셔츠, 넥타이 색의 변화가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파랑색 넥타이는 품위있고 매력적으로, 빨강색 넥타이는 현시성이 뛰어나게, 은회색 넥타이는 능력있고 품위있으며 매력적이고 남성적으로 지각되었다. 노랑색 넥타이는 활동적이고 현시성이 뛰어나게 지각되었다. 와이셔츠와의 배색에서 검정색 와이셔츠에 은회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능력있고 호의적이며 남성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흰색 와이셔츠에 은회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파랑색 와이셔츠에 파랑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활동적인 것으로, 검정색 와이셔츠에 노랑색 넥타이는 가장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여자는 빨강색 넥타이를, 남자는 파랑색 넥타이를 더 능력있게 지각하였고, 성취동기가 낮은 집단은 빨강색 넥타이를, 성취동기가 높은 집단은 파랑색 넥타이를 능력있게 지각하였으며,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강하고 분명한 느낌의 색을 더 선호하는 편이었다.

남성 선거 입후보자의 옷차림이 유권자들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dCollection @ sungshin

관한 김현지(2003)의 연구에서 감색 넥타이는 친근성이, 빨강색 넥타이는 역동성이, 노랑색 넥타이는 사교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라 여성은 노랑색을 매우 친근한 색으로 인식하였으나, 남성은 감색을 더욱 친근한 색으로 평가하였다. 연령에 따라 노랑색 넥타이는 40-60대 유권자에게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30대 유권자에게는 평가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임지영, 강경자(2005)는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에 관하여 한난색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빨강색의 톤 온 톤 배색의 경우, 비비드톤 셔츠와 비비드톤 넥타이가, 라이트 셔츠와 비비드, 덜, 다크톤의 넥타이가, 덜톤 셔츠와 라이트, 다크톤 넥타이가, 다크톤 셔츠와 비비드, 덜, 다크톤 넥타이가 조화된다 하였다. 파랑색의 톤 온 톤 배색의 경우는 비비드톤 셔츠와 덜, 다크톤 넥타이가, 라이트 셔츠와 비비드, 덜, 다크톤의 넥타이가, 덜톤 셔츠와 다크톤 넥타이가, 다크톤 셔츠와 비비드, 라이트, 덜톤 넥타이가 조화된다고 하였다.

임지영 (2007a, b)은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방법에 따른 인상평가 및 조화·부조화 영역에 관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넥타이가 비비드톤인 경우 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셔츠색에 관계없이 주황색 넥타이가 가장 능력있게 지각되었으며, 대체로 넥타이 톤이 어두울수록 능력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크톤의 노랑색 넥타이는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배색별로 톤 온 톤 배색의 경우 셔츠와 넥타이의 톤 조합이 라이트-비비드, 라이트-덜, 덜-다크, 다크-덜톤일 때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톤 인 톤 배색의 경우에는 비비드, 라이트, 덜 톤에서 빨강색 셔츠와 주황색 넥타이의 배색이 조화되는 것으로, 컨트라스트 배색의 경우에는 넥타이가 다크톤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유채색 배색의 경우 흰색 셔츠는 대부분의 넥타이와 조화되는 것으로, 무채색-무채색 배색의 경우 흰색 셔츠는 밝은

dCollection @ sungshin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색 넥타이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성남숙, 강경자(2007)는 스트라이프 넥타이의 색상과 톤면적비에 따른 남성착용자의 이미지 평가 연구에서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보라색의 넥타이 색을 톤면적비를 변화시켜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톤면적비가 3:1:2와 3:2:1인 노랑색 넥타이를 가장 활동성이 높게 지각하였고, 톤면적비에 상관없이 여자는 보라색 넥타이를, 남자는 파랑색 넥타이를 능력있게 지각하였다. 톤 면적비가 3:2:1인 보라색 넥타이를 매력성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톤면적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빨강색 넥타이를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노랑색과 빨강색 넥타이는 온유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조합하여 볼 때 대체로 파랑색 넥타이는 품위있고 매력적이며 친근하게, 빨강색 넥타이는 역동적이며 현시성과 온유성이 뛰어나게 지각되었다.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여자는 빨강색 넥타이를, 남자는 파랑색 넥타이를 더 능력있게 지각하였고, 중년 지각대상자에 관한 평가에서 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20대는 정장과 유사색 넥타이를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40 · 50대 지각자는 대비색 넥타이를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고 지각하여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국내 20대 그룹 중, LG, SK, 코오롱 등 8곳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장을 자율화 한 가운데(안상미, 2008), 2008년 10월 1일 기점으로 삼성그룹 또한 공식적인 드레스 코드(dress-code)를 '비즈니스 캐주얼(business casual)'로 자율화 했다. 삼성그룹에 의해 제시된 비즈니스 캐주얼의 착복 기준은 비즈니스 에티켓에 위배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의는 칼라가 있는 캐주얼한 드레스 셔츠와 칼라가 있는 재킷이고, 하의는 정장 바지 차림이며,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삼성전자, 2008). 이와 같은 노타이 차림의 복

dCollection @ sungshin

장 자율화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도움을 주며, 개인의 창의와 다양성이 보다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문화적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된다는 호의적인 입장이다(남훈, 2008). 더욱이 2005년부터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시작된 쿨 비즈(cool biz) 운동, 여름철 폭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편안하면서도 격조를 잃지 않는 노타이 비즈니스 정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회사원들의 노타이 차림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권, 언론계까지 동참될 전망이다(이동훈, 2008).

넥타이를 매지 않는 정장의 경우, 여름철 체온이 2℃ 정도 떨어지며 깔끔한 V존을 연출할 수 있어 시각적으로 청량감을 준다(황재성, 2007). 뿐만 아니라 격식과 위엄을 갖춰 단호해 보이는 흰 셔츠와 넥타이 차림의 정장에 비해 흰셔츠와 노타이 차림은 격식은 갖추어 단호해 보이면서도 캐주얼 셔츠와 같이 약간은 풀어진 것처럼 편해 보이므로 이중적인 매력이 지각될 수 있다(강승민,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넥타이 착용여부에 관한 이미지 평가를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 상황에서 넥타이를 맨 모습은 노타이 차림보다 더 지적으로 평가된 반면, 캠퍼스 내에서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이 더 지적으로 평가되어,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Rees 외, 1974).

Pronchik 외(1998)는 의사의 넥타이 착용여부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넥타이 착용여부는 환자가 느끼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도 지각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환자가 담당 의사의 넥타이의 착용여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담당 의사가 넥타이를 착용했

dCollection @ sungshin

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으며, 환자의 30%는 담당 의사가 넥타이를 매지 않았는데도 넥타이를 맨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담당 의사가 넥타이를 착용했다는 인식은 의사의 인상평가, 선호도 지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Molloy(2005)는 넥타이 착용여부가 회사 취업 인터뷰 상황에서의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에서 보수적인 스타일의 품위있는 넥타이를 맨 경우, 저가의 넥타이를 맨 경우,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품위있는 넥타이를 맨 사람은 다른 두 그룹보다 취업 인터뷰에 합격하는 확률이 높았다. 또한 면접관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터뷰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넥타이를 맨 사람에게는 아예 인터뷰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인터뷰 하는 시늉만 하였다. 응시자에 대하여 면접관들은 품위있는 넥타이를 맨 사람을 유능하고 감각있는 사람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으며, 저가의 넥타이를 맨 사람에 대해선 자격미달이고 눈치가 없고 무능하며 정직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Molloy(2005)는 넥타이 착용 여부와 연봉 추론에 관한 다른 실험에서 중상류층 분위기의 넥타이를 맨 경우, 블루칼라 분위기의 저가의 넥타이를 맨 경우,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상류층 분위기의 넥타이를 맨 사람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사람보다 약 4,000-6,000달러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추론되었으며, 블루칼라 분위기의 저가의 넥타이를 맨 사람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사람보다 연봉이 낮게 추론되어 좋은 넥타이를 살 여유가 없다면 아예 넥타이를 매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하였다.

따라서 넥타이 착용여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대

dCollection @ sungshin

체로 능력, 신뢰도, 경제력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상황, 성별 등에 따라 인상평가의 차이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넥타이 색과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착용자의 인상형성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3) 모자 착용과 이미지

가. 모자 착용

머리에 쓰는 것을 총칭하는 모자는 추위나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거나 장식용 또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서(네이버 백과사전)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며 변천해 왔다.

19세기 이전까지 모자는 신분이나 계급,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20세기,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실생활 및 계절에 따른 생활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개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패션 소품으로 발전하였고(김은실, 배수정, 2005), 현재에는 패션쇼, 모드의 발표, 디스플레이 등에서도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모자 스타일이 공존하고 있다(이경손, 김희섭, 2000).

남성의 모자는 키가 작고 머리 모양이 큰 동양인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유행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 정장용뿐만 아니라 스포츠용, 캐주얼용으로도 즐겨 쓰는 추세이다. 특히 직장인의 주 5일제 근무로 캐주얼, 스포츠 레저용 의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가 토털 코디네이션 개념이 확산되면서 복장에 어울리는 다양한 캐주얼, 스포츠용 모자가 출시, 판매되고 있다. 또한 겨울이 모자 판매의 성수기였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운동경기 시즌', '연예인 따라잡기', '야외 활동으로 인한 자외선 차단' 등의 이유로 계절에 상관없이 그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다(김선기, 2007). 이 중,

dCollection @ sungshin

야구모자는 올림픽,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등의 야구 열풍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필수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고(강민혁, 2009),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티셔츠와 함께 코디할 수 있어 그 매출이 증가세에 있으며, 실제로 2009년 5월 야구모자 판매율은 인터넷 종합 쇼핑몰 GS이숍, 인터파크, 옥션에서 전년 동기 대비 35%-40%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였다(육덕수, 2009).

한편, 노령층의 모자 착용은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장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모의 결점을 가려주거나 보완하기 위해, 혹은 건강상의 이유에서도 중요하다. 가령, 노령층 남성의 경우, 머리의 탈색, 탈모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으며(이유명, 2006), 겨울철 운동 시,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양홍주, 2007), 노령층에서 흔하게 발병되는 노인성 백내장,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경우 차고 건조한 바람을 막기 위해 모자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임찬영, 2006).

나. 모자 착용 이미지 연구

신체적 단서 중 얼굴은 타인의 개인 특성, 미래의 성과, 명성에 관한 추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여 인상형성과 그에 따르는 대인행동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변수로 정의된다(조경희, 2006).

모자는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이며 인체의 가장 높은 부분인 모발 위에 쓰는 것으로 크기에 관계없이 헤어스타일과 함께 시선을 집중받을 수 있고, 전체 복식의 이미지를 좌우하여 착용자의 이미지를 향상 또는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인상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단서임을 예측할 수 있다.

dCollection @ sungshin

모자 착용에 따른 남성의 인상형성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고, 관련 연구로 여성의 모자 착용에 관한 인상형성 연구, 모자 선호도 조사, 착용실태 조사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유경(2000)은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야구유니폼의 이미지 평가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빨강색 상의와 빨강색 모자, 검정색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 가장 남성적으로 평가되었고, 남색 상의와 남색 모자, 남색 스트라이프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와 빨강색 상의와 빨강색 모자, 검정색 하의를 착용했을 때 능력있게 평가되었다. 빨강색 상의와 빨강색 모자, 흰색 하의를 착용했을 때 가장 활동적으로 평가되었다. 선호평가차원에서 남색 상의와 남색 모자, 남색 스트라이프 하의를 착용했을 때와 남색선이 들어간 흰색 상하의, 남색 모자를 착용했을 때, 그리고 남색 상의와 남색 모자, 흰색 하의를 착용했을 때 호의적으로 평가되었다.

정해선, 강경자(2004a)는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모자 유형에 따른 인상형성을 연구하였으며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주의집중성, 귀염성의 차원을 도출하였다. 모자유형별로 케플린(capeline)[1]과 볼러(bowler)[2]는 매력성이, 볼러와 클로시(cloche)[3]는 품위성이, 베레(beret)[4]와 케플린, 볼러는 주의집중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헤어길이에 상관없이 베레를 착용하면 귀여운 이

1) 브림이 넓은 모자의 총칭이다. 특히 18세기 후반에 널리 착용된 모자로 타조의 털이나 조화, 리본 등으로 호화롭게 장식하였다. 원래 부인들의 정장용이었으나 햇볕을 피하는 스포티한 면도 있다(안명숙, 장애란, 2002)

2) 둥근 크라운과 양 옆이 약간 올라간 좁은 브림이 달린 형태로서 빳빳하며 주로 검정 펠트로 만든 모자이다. 원래는 영국의 비즈니스맨이 정장차림을 할 때 쓴 것으로, 미국의 더비와 비슷하다. W.볼러가 1850년경에 디자인했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었다(네이버두산백과사전).

3) 크라운이 높고 머리에 꼭 맞는 모자로 브림이 아래쪽으로 내려지고 종 모양으로 생긴 모자를 말한다. 현재 스포츠용 및 레저용 모자로 넓게 이용되고 있다(최인려, 방혜경, 2006).

4) 둥글 납작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챙이 없는 모자이다. 활용범위가 넓어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많이 애용하는 모자로 소재는 모직이 일반적이고 드레시하게도 스포티하게도 쓸 수 있다(이경손, 김희섭, 2000).

dCollection @ sungshin

미지로, 볼러나 케플린을 착용하면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된 반면,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헤어길이가 짧을 때에는 귀여운 이미지로, 길 때는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클로시를 쓸 경우, 헤어길이는 짧을 때, 볼러를 쓸 경우 헤어길이가 중간일 때 귀염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또한 정해선, 강경자(2004b)의 또 다른 연구에서 모자 유형(베레, 클로시, 볼러, 케플린), 모자색(빨강색, 파랑색, 베이지색, 회색), 상의색(모자색과 동색과 이색)을 독립변인 한 결과, 모자색이 빨강색일 경우 케플린-볼러-클로시-베레 순으로, 모자색이 파랑색일 경우, 볼러-케플린-베레-클로시 순으로 주의집중성이 컸다. 모자색이 회색이나 빨강색일 때와 상의색이 모자색과 동색일 때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품위는 모자 유형에 상관없이 파랑색일 때는 높게, 빨강색일 때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베레는 베이지색을, 클로시는 회색을, 볼러는 베이지색나 회색을, 케플린은 회색을 선택하는 것이 품위있는 인상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었다. 온유성은 상의색이 모자색과 같을 경우, 파랑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유한 인상을 주었다.

이명희(2006)는 액세서리 착용이 여성의 전문성과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지각대상자의 연령을 달리하여 조사하였고, 액세서리 이미지 요인으로 전문성, 귀여움성, 여성성, 매력성, 개성 요인을 도출해 내었다. 티셔츠에 캡(cap)을 착용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전문성, 여성성이 낮게 지각되었고, 40대 여성이 재킷을 입고 햇(hat)을 착용한 모습은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서미아, 이선희(2000)는 55세 이상의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의복디자인 선호도 연구에서 모자 착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가끔 쓴다'(19.4%), '특별한 경우에만 쓴다'(9.1%), '자주 쓴다'(6.9%), '항상 쓴다'(5.6%)의 순이었으며, 노년 남성의 40%가 모자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자를 착용

dCollection @ sungshin

하는 이유로 '멋으로 쓴다'(28.9%), '머리를 가리기 위해 쓴다'(23%), '기타'(22.4%), '습관적으로'(20.7%), '추워서'(5%)의 순서로 나타나 장식적인 목적이 가장 높았다.

이진희(2002)는 대학생의 모자 치수 인지도와 선호 디자인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이 선호하는 모자형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아폴로캡(apollo cap)[5](65.8%)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여학생(60%)보다 남학생(78.8%)이 더 많은 비율로 선호하였다. 소유하고 있는 모자의 색상은 베이지색(29.4%), 흰색(20.8%), 검정색(20.1%), 청색(19.1%), 빨강색(10.6%)의 순으로 나타나 원색이 아닌 무난한 계열의 색상이나 무채색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검정색 모자는 남학생(25.2%)이 여학생(18.1%)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한 반면, 흰색 모자는 여학생(22.1%)이 남학생(17.6%)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박규원(2005)은 스포츠 모자를 중심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투영된 상징적 디자인 표현물의 감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녀대학생은 평균 4개 이상의 모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모자는 야구모자로 83%의 대학생이 1개 이상씩 보유하고 있었다. 스포츠 모자에 나타나는 심벌마크(symbol mark)는 47%의 응답자가 표시되어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심벌마크가 없다면 멋이 없을 것이라 대답하였고, 심벌마크의 형태는 모자와 잘 어울리는 패션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모자 착용에 따른 남성 인상형성 연구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으나 여성인 경우 모자는 그 색과 유형, 착용자의 헤어스타일과

5) 펠트로 만들었으며 야구모자와 비슷한 둥근 모자이다. 앞부분에 화려한 자수가 놓이고 파랑색, 빨강색, 초록색 등이 많이 사용된다. 이름은 아폴로 우주선의 선원들이 쓰기 시작한 것에서 기인하였다(전선정 외, 1999).

dCollection @ sungshin

의복색, 연령 등과 함께 인상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단서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착용실태 조사에서 젊은층 남성은 일반적이면서 캐주얼 웨어에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야구모자를 가장 선호하였고, 베이지색 야구모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층 남성의 경우 모자를 착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주로 장식적인 목적으로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모자 착용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경우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식적 액세서리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적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장식적 액세서리에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브로치 등이 있다. 이 중 남성이 착용할 수 있는 장식적 액세서리는 남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제약으로 여성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다. 그러나 꽃미남 열풍과 관련하여 여성 못지않게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메트로 섹슈얼족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패션이 점점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TV, 인터넷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연예인이나 일부 특정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장식적 액세서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착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김나연, 2008).

실제로 남성 쥬얼리 시장은 2002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군소업체들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제냐(Zegna), D&G(Dolce & Gabbana), 디오르 옴므(Dior Homme)등 해외 브랜드(이정환, 2007)들과 국내 남성 쥬얼리 전문 브랜드인 페르소나 옴므(Persona Homme) 외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Bobos, Mu4sido, Stylo 등)들이 20-3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의 활성화

dCollection @ sungshin

로 쥬얼리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황의건, 2006; 김대희, 2008).

남성들이 사용하는 장식적 액세서리에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등이 있으며 이 중, 목걸이가 젊은층 남성들에게 많이 착용되어지고 있으나(신주동, 최종명, 2008) 남성 목걸이 착용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관련 연구로 여성의 목걸이 착용에 관한 인상형성 연구, 고정관념, 액세서리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걸이는 그 길이에 따라 목에 꼭 맞는 초커(choker, 33-40cm), 초커보다는 길며 쇄골 뼈 바로 아랫길 정도 길이의 프린세스(princess, 40-46cm), 가슴 위, 아래 정도 길이의 마티네(matinee, 50-61cm), 가슴 아래에서 배꼽 정도의 길이의 오페라(opera, 71-81cm), 여러 겹을 감아서 사용하는 로프(rope, 81cm 이상) 등으로 구별된다(박숙현, 2007). 또한 그 재질에 따라 금과 은, 철, 플라스틱 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은 동양인의 피부색에 잘 어울리고 은은 시원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주며 하얀 피부를 가질수록 그 효과가 크다. 의복과 관련하여 라운드 네크라인에는 네크라인 선보다 약간 내려오는 목걸이를, V네크라인에는 둥근 형의 목걸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장애란 외, 2000).

여성 장신구에 관한 선행연구(이명희, 강승희, 1998)에서 큰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작은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하였거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능력있게 보았으나 품위는 낮게 지각되었다. 또한 빨강색 재킷에 큰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하였을 때 가장 능력있고 젊게 보였으며 여성적으로 지각되었고, 흰색 및 검정색 재킷에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가장 능력이 낮게, 검정색 재킷에 큰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가장 젊지 않게 지각되었다. 회색 재킷에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검정색 재킷에 작은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여성적

dCollection @ sungshin

이미지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액세서리에 관한 전문성 평가 연구(이명희, 2006)에서 목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전문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또한 액세서리에 관심이 높은 집단은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의 20대 여성을 40대보다 더 귀여움성이 높게 지각하였으나 액세서리 관심이 낮은 집단은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의 20대와 40대를 유사하게 평가하였다.

한편,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에 관한 한명숙(2004)의 연구에서는 여학생과 여선생님보다 남학생과 남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장신구 고정관념이 보다 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머리핀 등은 '여선생님답다'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액세서리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로 이은희, 전경란(2001)은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신구 구입기준은 디자인-가격-실용성 순이었고, 소유하고 싶은 장신구로 여학생들은 신발, 귀걸이, 목걸이, 머리핀, 가방을, 남학생들은 신발, 시계, 모자, 목걸이를 꼽았다. 장신구 구입 시, 색상에 중점을 두는 대학생들과 반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은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옥련, 이현지(2004)는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연구에서 국내 남성복 잡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장신구(목걸이, 반지) 착용 사진, 모자 착용 사진, 스카프/머플러 착용 사진, 벨트 착용 사진,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의복 사진 중, 착용하지 않은 의복 사진이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이 장신구 착용 사진-스카프/머플러 착용 사진 순이었으며 이 중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착용사진은 1995-1999년 21%에서 2000-2003년 23.6%로 증가세에 있다고 하였다.

김용숙, 전채령(2007)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

dCollection @ sungshin

에 관해 조사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은 여자 고등학교나 남·녀공학 고등학생들보다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핸드폰 스트랩, 패션 운동화, 패션 양말, 패션 시계 순으로 착용빈도가 높았다.

남녀 대학생의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장신구 착장에 관한 신주동, 최종명(2008)의 연구에서 개성 추구형과 자기 과시형 집단에 속한 대학생은 실용 추구형, 브랜드 추구형 집단에 비해 장신구 소유와 착장빈도가 더 높았다. 또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액세서리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시계-목걸이-반지-팔찌-귀걸이 순으로,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귀걸이-목걸이-반지-시계-팔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착장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목걸이-반지-귀걸이의 순으로, 여자 대학생은 귀걸이-목걸이-반지의 순으로 착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항목 모두 남녀의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장식적 액세서리인 목걸이는 여성 착용자의 인상형성 과정에 영향 주는 단서로서 여성성과 능력, 전문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남성의 목걸이 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는 선행되지 않았으나 남성의 목걸이, 반지의 착용은 증가세에 있고, 남성 액세서리 착용 행동 조사 결과, 소유하길 원하며, 현재 가장 많이 착장되고 있는 장식적 액세서리로 목걸이를 들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대표적인 장식적 액세서리로 목걸이를 선정하여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dCollection @ sungshin

3.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

1) 헤어스타일과 이미지

헤어스타일은 인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복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가시적인 신체 단서 중 하나로 변화가 용이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김희숙, 1995) 가치관, 지위, 직업 등 개인의 내·외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첫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해 준다. 또한 헤어스타일은 인상형성 과정에서 입, 코, 눈 등과 같은 얼굴 구조의 생김새와 함께 하나의 총체적 이미지로 평가되어 이미지 지각의 심리적 효과를 좌우한다. 윤소영(2001)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의복이 53.33%, 헤어스타일이 46.67%이지만 인체의 비율로 볼 때 헤어스타일은 의복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적으므로 인체 전체에서 헤어스타일의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하였다.

외모에 대한 남성의 관심은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나 다양한 외모 단서가 사회적 역할 수행 향상 및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헤어스타일 또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남성의 사회적인 성공과 직업의 기회에 도움을 주고, 자신감, 외모만족도 등을 상승시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Trüeb, 2005). 또한 헤어스타일은 퍼머여부나 길이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컬러의 변화에 따라 남성의 능력, 역능성, 사교성, 품위, 개성 등과 같은 이미지 지각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재숙, 류지원, 2004; 하경연, 2006).

남성의 헤어는 여성보다 약 5년 빠른 30~34세 부터 조금씩 노화가 진행되어 흰머리가 늘게 되고 50대가 되면 남성의 50%가 50%의 흰머리를 가지게 되는데(한국두피모발연구학회, 2006), 노년층 남성들은 이러한 노화에

dCollection @ sungshin

의한 백발을 염색을 통해 변화시킴으로서 외모를 개선, 보완한다. 이경호, 홍미경(2004)은 대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조언에서 자연스러운 흰머리는 편안하고 자상해 보이며 책임감과 장인정신을 지닌 인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염색한 머리는 활력있고 젊게 지각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 염색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시사했다. 따라서 남성의 헤어컬러에 대한 인상형성 연구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패션염색에 관한 접근뿐만 아니라 노년층 남성의 흰머리 염색여부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남성의 헤어스타일 연구는 주로 20대 남성의 헤어 형태, 컬러, 의복색, 의복유형, 진보, 보수 성향, 얼굴의 익숙함 정도에 관련된 이미지 지각 연구와 선호도,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Mahannah(1968)는 빨강색 및 파랑색의 의복색과 검정색 및 금발의 헤어컬러가 의복착용자의 성격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헤어색과 의복색을 달리한 동일자극인물의 4가지 사진(검정색 헤어스타일에 연한 빨강색 옷, 금발에 연한 파랑색 옷, 검정색 헤어스타일에 빨강색 옷, 검정색 헤어스타일에 파랑색 옷)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음양(yin-yang)의 성격특성 지각은 헤어색과 의복색에서 상호작용효과를 보여 검정색 헤어스타일에 빨강색 의복이 조합되었을 때 가장 남성적이며 대담한 사람으로 지각되어 양의 성격을 나타냈다.

Peterson과 Curran(1976)은 현대문화에 있어서 남성의 헤어 길이가 개방성과 보수성에 관련된 상징이며, 남성의 신체적 매력을 평가하는 주요 단서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남성 머리형의 변화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 연구에서

dCollection @ sungshin

지각대상자의 헤어스타일을 긴머리, 짧은 머리로 구분하였고, 지각자의 진보, 보수 성향 정도를 성경험여부, 교회참석여부, 약물사용여부, 잡지정기구독여부(플레이보이, 글래머 등)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 남성이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 짧은 머리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수적이었고 짧은 머리의 지각대상자 또한 보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긴머리를 선호하는 여성은 개방적이었고 긴 머리의 지각대상자 또한 개방적으로 평가하여 유사-호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Kyle과 Mahler(1996)는 신입회계사 취업지원자의 능력 판단에 여성의 헤어컬러와 화장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빨강색 머리와 금발보다 짙은 색인 검정색 머리 여성이, 화장을 한 여성보다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이 더 높은 초봉을 받을 것이라 지각되어 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고, 빨강색 머리와 금발은 능력 평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Donnell과 Bruce(2001)는 얼굴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낯선 얼굴, 익숙한 얼굴로 나누어 지각자에게 보여준 뒤 얼마 후, 얼굴의 내부 특징(눈모양)과 외부특징(헤어스타일)을 변화시켜 다시 보여 주었다. 그 결과, 지각자는 낯선 얼굴, 익숙한 얼굴 모두에 대해 얼굴의 내부특징(눈모양)의 변화보다 외부특징인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가장 먼저 지각하였다. 내부특징의 변화는 낯선 얼굴의 경우 지각되지 못하였고, 익숙한 얼굴일수록 잘 지각되어 얼굴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더 얼굴 내부의 특징들을 탐색하게 된다고 하였다.

임남영, 강승희(2003)는 의복유형과 남성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인, 학생 모두 스포츠형의 헤어스타일이 일반형의 헤어스타일보다 사교성 요인이 높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은 재킷/청바지, 남방/

dCollection @ sungshin

청바지 및 남방/면바지 차림에서 품위가 높게 평가된 반면, 일반형의 헤어스타일은 재킷/면바지 차림에서 품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김재숙, 류지원(2004)은 헤어길이와 헤어컬러가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노랑색이나 붉은색 헤어스타일은 길이에 관계없이 현시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갈색과 검은 갈색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일 때 현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또한 갈색과 검은 갈색 헤어스타일의 경우 짧은 머리일 때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노랑색과 붉은색 헤어스타일의 경우 약간 짧은 머리, 약간 긴 머리, 긴 머리일 때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검은 갈색과 갈색의 약간 짧은 헤어스타일은 역능적 이미지가 높게 지각되었다.

남성의 캐주얼 이미지 지각에 관한 강승희(2005)의 연구 에서 일반형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게 지각되었으며,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은 개성과 사교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상호작용효과에서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의 경우 남색 스웨터를 착용했을 때, 일반형 헤어스타일의 경우 남색 점퍼를 착용했을 때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옷차림에 따른 연령 추론에서 빨강색 스웨터를 입고 일반형 헤어스타일을 한 경우 연령이 낮게, 와이셔츠에 베이지색 점퍼를 착용하고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을 한 경우 연령이 높게 추론되었다.

하경연(2006)은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에서 헤어디자인의 이미지 차원으로 개성, 품위성, 낭만성, 세련성, 활동성 요인을 추출하였다. 어두운 톤의 검정색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은 가장 품위있게 평가되었고, 어두운 톤의 검정색 웨이브 헤어스타일은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웨이브진 오렌지색 헤어스타일은 가장 개성적으로, 검정색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은 가장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서울지역 사람들은 타 지역보다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을 웨이브 헤어스타일 보다 더 세련된 것으

dCollection @ sungshin

로 지각하였으며, 검정색 헤어스타일은 겨울에 어울리고, 갈색 헤어스타일은 여름, 가을에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남성 헤어스타일의 세련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남자는 개성, 품위의 순으로, 여자는 개성, 낭만성, 활동성 순으로 영향을 주어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류지원, 김재숙(2007)은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성 착용자의 의복 격식차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에서 옷차림 변인(격식 차림, 준 격식 차림, 편안한 차림)과 헤어스타일 변인(직모, 약한 웨이브, 강한 웨이브)을 달리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직모는 웨이브 헤어스타일보다 역동성이 높게 지각 되었고, 옷차림에 따라 편안한 차림에서는 직모가 웨이브 헤어스타일보다 역동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격식차림에서는 웨이브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패션·미용 관련 전공자들은 강한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매력있게 평가하였고, 일반 전공자들은 직모를 매력있게 평가하였다. 남녀 모두 직모가 웨이브 헤어스타일보다 역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강한 웨이브 헤어스타일은 남녀 모두 역능성 낮게 평가하였다.

Cash(1990)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남성 대머리 여부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에서 대머리인 남성과 대머리가 아닌 남성의 사진슬라이드를 연령별, 인종별, 다른 신체적인 특징별로 매치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머리인 남성 자극물은 그렇지 않은 자극물보다 호감도, 신체적, 사회적인 매력도, 인생의 성공여부에 있어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연령 추론에 대해서는 높은 등급을 받아 나이가 실제보다 높게 지각되었다.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로 Pancer와 Meindl(1978)은 긴 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경우보다 자유주의적이며 개방적인 인상을 형성하며 이러한 남성 장발에 대한 평가는 문화적 고정관념 및 유행과 관련되어 변화된다고 하였다.

dCollection @ sungshin

남·여 대학생의「~답다」에 대한 성역할 지각에 관한 한명숙, 하희정(2003), 한명숙(2004)의 연구에서는 두발의 색이 검정색과 갈색이었을 때 '남자답다'고 평가되었고, 검정색일 경우 더욱 남성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여자답다'고 평가된 두발색은 검정색, 갈색, 와인색, 퍼플색, 레몬색, 오렌지색이었으며 성별에 따라 남자가 여자보다 갈색을 더 '여자답다'고 인식하였다.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모발색상으로는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에 검정색을, '여학생답다'와 '여선생님답다'에 검정색과 갈색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라는 평가에서는 매우 짧은 커트를 높게 평가하였고, '여학생답다'에서는 단발 직모와 긴 직모를 높게 평가하였다.

헤어스타일에 관한 선호도 연구로 Feinman과 Gill(1978)은 성별에 따른 신체적 매력 선호도를 연구하였는데, 이성의 헤어컬러가 빨강색인 경우, 남자의 7%, 여자의 2%가 선호하였고, 남자의 82%, 여자의 84%가 싫어하였다. 금발은 남자의 38%, 여자의 28%가 선호하였고, 남자의 1%, 여자의 2%가 싫어하였으며, 갈색머리는 남자의 41%, 여자의 47%가 선호하였고, 남자의 3%, 여자의 9%가 싫어하였다. 검정색 머리는 남자의 14%, 여자의 23%가 선호하였고 남자의 14%가 이성의 검정색 머리를 싫어한 반면, 여자는 5%만이 싫어하여 검정색 머리 이성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이혜진, 양진희(2007)는 남성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지역별 비교 연구에서 일반적인 짧은 스타일, 메트로 섹슈얼 스타일(metro sexual style), 위버 섹슈얼 스타일(uber sexual style),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cross sexual style)의 4가지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제시하여 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반적인 짧은 헤어스타일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었으며,

dCollection @ sungshin

그 이유로 자신의 환경과 적합하며 자신의 취향을 잘 나타내주어 깔끔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남성은 남성답고 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영향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보다 일반적인 짧은 길이의 헤어스타일이 더 선호되었고, 길이에 따라 지각자와 지각대상자의 진보 보수 성향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과도 관련이 있었다. 또한 형태에 따라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은 사교성, 개성이 높았고, 일반형 헤어스타일은 단정성이 높았다. 또한 컬러에 따라 짙은 색 헤어컬러는 품위있고 남성적이며 능력있게 보였으나 개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의복유형과 의복색과 관련하여 캐주얼 의류는 스포츠형이, 정장 의류에는 일반형 헤어스타일이 품위가 높게 지각되었고, 스포츠형, 일반형 모두 남색류의 상의를 입었을 때 단정하게 지각되었으며, 빨강색 상의의 일반형 헤어스타일의 경우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의 형태와 컬러는 남성의 인상형성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거나 다른 외모 변인과 결합하여 하나의 게슈탈트로 전달됨으로써 총체적 이미지 형성을 이끄는 주요 단서임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sungshin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젊은층과 노년층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연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차원을 요인분석한다.

연구문제 2.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연구한다.

연구문제 3.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색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연구한다.

연구문제 4. 남성의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연구한다.

연구문제 5. 남성의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 헤어스타일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를 연구한다.

연구문제 6. 남성 외모에 대한 직업 추론의 차이를 연구한다.

연구문제 7. 남성의 이미지 특성과 선호도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dCollection @ sungshin

2. 측정도구 개발

본 연구는 준 실험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남성 액세서리 착용자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문항, 지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자극물

(1) 실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젊은층과 노년층 남성의 모습으로 외모 단서로 액세서리(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 헤어스타일 및 헤어색(젊은층은 일반형, 스포츠형 / 노년층은 회색, 검정색), 의복(정장, 캐주얼 티셔츠)의 종류에 따라 변화시킨 것이다.

자극물의 수는 젊은층 자극물 24개(정장 자극물 18개, 캐주얼 자극물 6개)와, 노년층 자극물 24개(정장 자극물 18개, 캐주얼 자극물 6개)로 총 48개이며, 각 실험설계별 변인의 구성 내용은 <표 1>과 같다.

① 실험설계 A: 3×3×2×2의 요인설계로 독립변인은 젊은층의 안경(3), 넥타이(3), 헤어스타일(2)과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2)이며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른 지각자의 인상평가이다. 젊은층의 안경 변인은 금속테, 뿔테, 안경 비착용의 경우이며, 넥타이는 남색 넥타이, 빨강색 넥타이, 넥타이 비착용의 경우를 포함하였고, 헤어스타일은 일반형과 스포츠형으로 하였다.

② 실험설계 B: 2×3×2×2의 요인설계로 독립변인은 노년층의 안경(2), 넥타이(3), 헤어색(2)과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2)이다. 노년층의 안경변인

dCollection @ sungshin

은 안경유(뿔테)와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이며, 헤어색은 자연스럽게 노화된 회색 머리와 염색된 검정색 머리로 하였다.

<표 1> 실험설계의 변인 조작 내용

독립변인 / 실험설계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	헤어스타일, 헤어색		지각자의 안경 착용여부	통제변인	요인 설계
	젊은층	노년층	젊은층 노년층	캐주얼 젊은층/ 노년층	정장용 노년층	젊은층	젊은층	노년층			
	금속테 뿔테 비착용	유 (뿔테) 무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야구모자 클로시 비착용	페도라 베레 비착용	착용 비착용	일반형 스포츠형	회색 검정색	착용 비착용		
A	○		○				○		○	젊은층 모델 진 회색정장 흰색 와이셔츠	3×3×2×2
B		○	○					○	○	노년층 모델 진 회색정장 흰색 와이셔츠	2×3×2×2
C				○		○				젊은층 모델 흰색 캐주얼 티셔츠	3×2
D				○				○		노년층 모델 흰색 캐주얼 티셔츠	3×2
E			○		○					노년층 모델 진 회색정장 흰색 와이셔츠	3×3

③ 실험설계 C: 3×2의 요인설계로 독립변인은 젊은층의 캐주얼 모자(3)와 목걸이(2)이다. 캐주얼 모자는 야구모자, 클로시, 모자 비착용의 경우이고, 목걸이는 착용여부로 하였다.

④ 실험설계 D: 3×2의 요인설계로 독립변인은 노년층의 캐주얼 모자(3)와 헤어색(2)이다. 캐주얼 모자는 야구모자, 클로시, 모자 비착용의 경우이고, 헤어색은 자연스럽게 노화된 회색 머리와 염색된 검정색 머리로 하였다.

⑤ 실험설계 E: 3×3의 요인설계로 독립변인은 노년층의 넥타이(3), 정

dCollection @ sungshin

장용 모자(3)이다. 넥타이는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의 경우이며, 정장용 모자는 페도라(pedora)[6], 베레(beret), 모자 비착용의 경우로 하였다.

(2) 자극물의 변인 선정

① 안경: 젊은층 자극물은 뿔테, 금속테, 반무테, 무테 중 판매율이 높은 검정색 뿔테와 검정색 금속테(김선기, 2007)와 함께 안경비착용의 경우를 포함하였고, 노년층 자극물은 검정색 뿔테와 안경 비착용의 경우로 정하였다. 검정색 뿔테 안경은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선호되는 디자인으로 단정하고 스마트한 느낌을 주며(이혜진, 2009), 사진 자극물 제작 시, 금속테에 비해 가시적으로 눈에 띄어 노년층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효과를 잘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정하였다. 안경테의 형태는 크게 웰링턴형[7], 폭스형[8], 로이드형[9], 보스턴형[10]이 있으나(이경희 외, 2006) 현재 남성 안경은 가로가 긴 스퀘어 플레임이 대중적이므로(김이지, 2008) 웰링턴형으로 하였다.

② 넥타이: 전통적이며 무난한 레지멘탈 스트라이프 무늬의(류재도, 2008) 남색 넥타이, 빨강색 넥타이와 넥타이 비착용의 경우로 조사하였다.

③ 캐주얼 모자: 젊은층, 노년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는 야구모자 및 클로시와 함께 모자를 비착용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야구모자의 경우 젊은층 남

---

6) 펠트로 만든 중절모자이다. 중절이란 크라운이 앞에서 뒤까지 길이방향으로 접혀 있음을 의미한다. 정장 차림에 이용되며 이태리 볼자리노(Bolsarino)와 독일의 홈부르크(Homburg)가 유명상품이다(최인려, 방혜경, 2006).
7) 웰링턴형(wellington): 플레임(flame) 원형의 하나로 각이 작게 잡혀진 사각형
8) 폭스형(fox): 1950년대 중반 등장해 여우의 눈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플레임 양쪽 끝이 올라간 형태
9) 로이드형(lloyd): 미국 희극배우 헤럴드 로이드가 애용한 데서 붙여진 명칭이며, 두꺼운 테두리의 원형 플레임
10) 보스턴형(boston): 둥근 형태이지만 원형이 아니라 밑이 약간 좁아지는 것이 특징임

dCollection @ sungshin

성에게 '패션용' 모자로 선호되고 흔하게 보유되고 있으며(이진희, 2002; 박규원, 2005)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작업용'으로도 착용되고 있다(박주광, 2005). 노년층의 경우 야구모자는 평소 그리 많이 착용되지는 않으나 골프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김수미, 2008; 최선임, 2008), 특히 노년층은 탈모예방을 위해 골프용으로 야구모자가 권장된다(홍미경, 2009). 또한 클로시는 현재 스포츠용 및 레저용으로 폭 넓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야구모자와 클로시를 젊은층과 노년층의 캐주얼 모자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의복은 라운드 네크라인의 흰색 반팔 티셔츠를 착용하였으며, 모자색은 가장 흔하게 보유되고 있는 색인 연한 베이지색(이진희, 2002)으로 정하였다.

④ 정장용 모자: 젊은층의 경우 출퇴근 시 정장용 모자를 거의 착용하지 않으므로, 정장용 모자는 노년층 남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노년층 남성이 많이 착용하는 정장용 모자로 페도라, 베레가 선정되었고,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조사하였다. 의복은 진회색 정장 및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였으며, 모자색은 정장색과 유사한 진회색으로 정하였다.

⑤ 목걸이: 노년층의 경우 목걸이를 거의 착용하지 않으므로 목걸이는 젊은층 남성만을 대상으로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의복은 라운드 네크라인의 흰색 반팔 티셔츠를 착용하였다. 목걸이의 형태는 마티네 길이의 팬던트(pendant)형 화이트 골드 목걸이로, 약 3cm 지름의 원형 팬던트와 52cm의 체인으로 구성되었다.

⑤ 헤어스타일: 젊은층은 일반형과 스포츠형으로 변화시켰으며, 노년층은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을 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일반형 헤어스타일의 회색과 검정색으로 구분하였다. 회색 머리는 흰머리가 일부 섞인 그레이쉬(grayish)한 색으로서 노년 남성의 자연스러운 머리색이며, 검정색 머리는

dCollection @ sungshin

검정색으로 염색한 모습이다.

(3) 자극물 제작방법

자극물 속의 지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표준체형이며 타원형 얼굴인 30대 남성을 젊은층 모델로, 60대 남성을 노년층 모델로 각각 1명씩 선정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0대는 20대에 비해 정장 착용 빈도가 높으며, 60대는 직장에서의 은퇴여부가 결정되는 연령대로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인 정장 차림과의 조합이 자연스러우며, 직업추론, 월소득 추론 등의 연구문제와도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선정하였다.

의복은 통제변인으로 각 모델에게 동일하게 재현되어야 하므로, 젊은층 모델에게 정장 차림과 캐주얼 차림을 각각 착장시킨 후, 상반신 위주로 사진 촬영하였다. 노년층 모델의 얼굴은 젊은층의 실험 의복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수정하여 노년층 자극물의 의복변인을 젊은층과 동일하게 통일시켰다.

회색 정장은 개인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는 선행연구(장애란, 안명숙, 박우미, 2000)를 바탕으로 정장차림은 진회색 비즈니스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였다. 또한 모자의 색상은 의복과 비슷한 계열로 코디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데(조진아 외, 2000), 회색은 비즈니스 정장으로 자주 착용하는 색이며, 본 연구의 정장용 모자색이 회색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캐주얼 차림은 흰색 라운드 티셔츠를 착용하였다.

동일한 의복으로 통제된 젊은층과 노년층 모델의 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에 의하여 한국인의 표준 얼굴과 흡사하게 수정하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간공학연구실이 조사한 한국 남성의 평균 얼굴 크기는 길이 23cm, 너비 16cm로, 길이는 이마 끝(머리카락이 난 경계점)에서 턱 끝까지, 너비는 한쪽 귀와 얼굴의 경계점에서 다른 쪽 귀와 얼굴의 경계점까지의 직선거리

dCollection @ sungshin

를 말한다(최정윤, 2006). 따라서 본 자극물의 얼굴 크기는 23:16의 비율에 근접하도록 하였고, 얼굴 내 각 요소들의 위치 및 크기는 한국인 평균 얼굴 모형 사진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한국 남성의 평균 얼굴 모형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 자극물은 연구목적에 따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성된 모델에게 합성시켰다.

① 1단계: 액세서리

안경과 목걸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1위 업체인 네이버 통합 쇼핑몰에서 뿔테 안경[11], 금속테 안경[12] 및 목걸이[13]를 택하여 포토샵으로 수정, 보

11) G마켓. GUCCI GG1553-584 블랙 뿔테 안경. 자료검색일 2008, 6. 1, 자료출처 http://www.gmarket.co.kr

dCollection @ sungshin

완하였다(그림2). 넥타이와 모자는 연구 목적에 맞는 비교적 일반적인 형태의 것을 구입하여 착용모습을 사진 촬영한 뒤, 포토샵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그 종류는 스트라이프 넥타이, 야구모자, 클로시, 중절모, 베레였다(그림 3).

<그림 2> 금속테, 뿔테, 목걸이 기초 자극물

<그림 3> 넥타이, 야구모자, 클로시, 중절모, 베레 기초 자극물

② 2단계: 헤어스타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모델의 헤어스타일을 일반형과 스포츠형, 회색과 검정색으로 수정하였다. 젊은층은 일반형과 스포츠형으로, 노년층은 회색 머리와 검정색 머리로 구분하였다.

---

12) 11번가. CavinKlein CK860-090 금속테 안경. 자료검색일 2008, 6. 1, 자료출처 http://www.11st.co.kr

13) G마켓. 젬플라워 화이트 골드 남자 목걸이. 자료검색일 2008, 6. 1, 자료출처 http://www.gmarket.co.kr

dCollection @ sungshin

③ 3단계: 액세서리 단서와 모델 사진과의 합성

1단계에서 저장된 액세서리 단서와 2단계에서 완성된 모델 사진을 실험 목적에 맞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정시켰다. 완성된 자극물에서 배경색과 같은 과외 변인들은 일정하게 통제시켰다. 배경색은 인상이나 이미지 측정을 위한 자극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채색인 연한 회색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완성된 자극물의 수는 총 48개이며, 1번~48번의 번호를 부여하였고 그 내용은 <표 2, 3>과 같다.

자극물은 허리길이의 상반신 사진으로서 10×15cm의 칼라 출력물이었고,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을 달리한 젊은층과 노년층의 자극물의 완성된 모습의 예는 <그림 4>와 같다.

자극물 5번은 금속테 안경을 착용하고 노타이 차림에 일반형 헤어스타일을 한 젊은층 남성이며, 19번은 뿔테 안경과 남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회색 머리를 한 노년층 남성이다. 자극물 37번은 목걸이와 야구모자를 착용한 젊은층 남성이며, 46번은 클로시를 착용한 검정색 머리의 노년층 남성의 모습이다. 1번부터 48번의 완성된 자극물 사진은 <부록 3>의 <그림 1-4>이다.

dCollection @ sungshin

<표 2> 연령별 정장 자극물의 변인 조작 내용

No.	젊은층 정장	No.	노년층 정장
1	금속테-남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19	안경유-남색 넥타이-회색 머리
2	금속테-남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20	안경유-남색 넥타이-검정색 머리
3	금속테-빨강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21	안경유-빨강색 넥타이-회색 머리
4	금속테-빨강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22	안경유-빨강색 넥타이-검정색 머리
5	금속테-넥타이무-일반형 헤어스타일	23	안경유-넥타이무-회색 머리
6	금속테-넥타이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24	안경유-넥타이무-검정색 머리
7	뿔테-남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25	안경무-남색 넥타이-회색 머리
8	뿔테-남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26	안경무-남색 넥타이-검정색 머리
9	뿔테-빨강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27	안경무-빨강색 넥타이-회색 머리
10	뿔테-빨강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28	안경무-빨강색 넥타이-검정색 머리
11	뿔테-넥타이무-일반형 헤어스타일	29	안경무-넥타이무-회색 머리
12	뿔테-넥타이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30	안경무-넥타이무-검정색 머리
13	안경 비착용-남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31	남색 넥타이-페도라 착용
14	안경 비착용-남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32	남색 넥타이-베레 착용
15	안경 비착용-빨강색 넥타이-일반형어	33	빨강색 넥타이-페도라 착용
16	안경 비착용-빨강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34	빨강색 넥타이-베레 착용
17	안경 비착용-넥타이무-일반형 헤어스타일	35	넥타이무-페도라 착용
18	안경 비착용-넥타이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36	넥타이무-베레 착용

<표 3> 연령별 캐주얼 자극물의 변인 조작 내용

No.	젊은층 캐주얼	No.	노년층 캐주얼
37	야구모자-목걸이 착용	43	야구모자-회색 머리
38	야구모자-목걸이 비착용	44	야구모자-검정색 머리
39	클로시-목걸이 착용	45	클로시-회색 머리
40	클로시-목걸이 비착용	46	클로시-검정색 머리
41	모자 비착용-목걸이 착용	47	모자 비착용-회색 머리
42	모자 비착용-목걸이 비착용	48	모자 비착용-검정색 머리

dCollection @ sungshin

<그림 4> 젊은층과 노년층 남성 모델

dCollection @ sungshin

2) 질문지

남성 액세서리 착용자에 대한 이미지 지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에서(Elman, 1977; 이은미, 강혜원, 1994; 정수정, 1997; 최유진, 2003; 정해선, 강경자, 2004ab; 이명희, 2006; 외 다수) 사용한 용어와 자유기술식 응답에서 추출된 형용사를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부록 1 참조). 자유기술식 응답은 여대생 70명에게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 조사하였다. 이때 액세서리가 각각 다르게 조합된 4개의 자극물에 1명의 피험자가 반응하도록 하였는데,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모든 형용사를 제한없이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과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용어는 중복되는 것과 조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시켜 총 36개 형용사쌍을 선정하였으며, 7점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하였다.

선호도는 '내가 좋아하는-내가 싫어하는', '호감이 가는-호감이 가지 않는', '보기 좋은-보기 싫은'의 3문항으로 자극물을 관찰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7점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하였다.

자극물의 월소득과 직업 추론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택형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연령평가를 위해 제시된 자극물을 관찰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직업의 분류는 통계청(2007)의 6차 계정 대분류표에 제시된 10개의 직업군[14]을 연구특성상 관련직끼리 통합하여 전문직 및 고위 관리직, 일반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기능직으로 정하였고 무직과 기타직의 기입을 추가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지각자의 연령과 안경착용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연령

14) 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 종사자 ⑥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자 ⑩군인 (통계청, 2007).

dCollection @ sungshin

의 분포는 20세 이하가 311명(49%), 21-25세 이하가 271명(42.7%), 26세 이상이 53명(8.3%)명이었으며, 안경착용여부는 안경 착용자가 292명(45.9%), 안경 비착용자가 343명(54.1%)이었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의 여대생으로 임의표집하였고 소속은 성신여자대학교(316명, 49.8%), 숭의여자대학(140명, 22%) 건국대학교(111명, 17.5%) 오산대학(68명, 10.7%)이었다.

한 개의 자극물에 대하여 각각 26-29명씩 반응하였고, 1인당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48개의 자극물을 평가한 전체 조자대상자는 여대생 635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8월-9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로 전산처리하였고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검증,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사원변량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빈도분석, 단일표본 χ^2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4>와 같다.

dCollection @ sungshin

<표 4> 연구문제 측정방법

연구문제		측정방법
연구1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차원의 요인분석	요인분석 Cronbach의 α신뢰도 검증
연구2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사원변량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연구3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색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연구4	남성의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연구5	남성의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 헤어스타일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연구6	남성 외모에 대한 직업 추론의 차이	빈도분석 단일표본 χ^2검증
연구7	남성의 이미지 특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Cronbach의 α 신뢰도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dCollection @ sungshin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요인분석

남성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의 평가를 위한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36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고유치는 추출요인의 수를 결정하는데 쓰이며, 고유치 1 이상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므로(조복희, 2002) 고유치 1 이상의 6개 요인(지성, 역능성, 온유성,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이 선정되었고, 1차 요인분석에서 각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2개 문항을 제외시킨 후 34문항을 2차 요인분석하였다. 이 때, 비교적 동질적인 문항이 같은 요인에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시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이 중 신뢰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3문항이 사용되었다.

요인분석 결과와 각 요인별 문항 및 명칭은 <표 5>와 같다.

6개 요인은 고유치가 2.46 이상이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47 이상의 것이 채택되었으며, 누적변량의 총 백분율은 60.67%이었다. <표 5>를 살펴보면 요인 1은 모두 7개 문항으로 논리적인-비논리적인, 성공적인-성공적이지 않은, 지성적인-비지성적인, 이성적인-감성적인 등이 포함되어 '지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2 이상이었다. 요인 2는 모두 8개 문항으로 힘있는-힘없는, 용감한-겁이 많은, 대담한-소심한, 적극적인-소극적인 등이 포함되어 '역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3 이상이었다. 요인 3은 모두 6개 문항으로 온화한-온화하지 않은, 따뜻한-차가운,

dCollection @ sungshin

<표 5>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요인분석

요인 1 지성	요인 부하량	요인 4 진취성	요인 부하량
논리적인 - 비논리적인	.80	중후한 - 경박한(*R*)	.67
성공적인 - 성공적이지 않은	.78	현대적인 - 고전적인	.65
지성적인 - 비지성적인	.74	젊어 보이는 - 늙어 보이는	.64
이성적인 - 감성적인	.67	고지식한 - 고지식하지 않은(*R*)	.60
책임감있는 - 책임감없는	.65	진보적인 - 보수적인	.57
성실한 - 불성실한	.57		
예리한 - 둔한	.52		
변량의 백분율(%)=13.30 고유치(eigenvalue)=4.52 Cronbach′*a* 신뢰도=0.84		변량의 백분율(%)=9.10 고유치(eigenvalue)=3.10 Cronbach′*a* 신뢰도=0.77	
요인 2 역능성	**요인 부하량**	**요인 5 현시성**	**요인 부하량**
힘있는 - 힘없는	.75	독특한 - 평범한	.78
용감한 - 겁이 많은	.69	개성있는 - 개성없는	.68
대담한 - 소심한	.68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68
적극적인 - 소극적인	.67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58		
자신감있는 - 자신감없는	.55		
건강한 - 건강하지 않은	.54		
강한 - 약한	.53		
변량의 백분율(%)=11.86 고유치(eigenvalue)=4.03 Cronbach′*a* 신뢰도=0.84		변량의 백분율(%)=7.62 고유치(eigenvalue)=2.59 Cronbach′*a* 신뢰도=0.78	
요인 3 온유성	**요인 부하량**	**요인 6 매력성**	**요인 부하량**
온화한 - 온화하지 않은	.77	멋있는 - 멋없는	.66
따뜻한 - 차가운	.77	매력있는 - 매력없는	.64
친절한 - 불친절한	.76	어울리는 - 어울리지 않은	.60
부드러운 - 거친	.71	세련된 - 촌스러운	.57
편안한 - 불편한	.67		
감수성있는 - 무뚝뚝한	.47		
변량의 백분율(%)=11.55 고유치(eigenvalue)=3.93 Cronbach′*a* 신뢰도=0.83		변량의 백분율(%)=7.24 고유치(eigenvalue)=2.46 Cronbach′*a* 신뢰도=0.80	

(*R*): 역산 문항

dCollection @ sungshin

친절한-불친절한, 부드러운-거친 등이 포함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47 이상이었다. 요인 4는 모두 5개 문항으로 중후한-경박한(*R*), 현대적인-고전적인, 젊어 보이는-늙어 보이는, 고지식한-고지식하지 않은(*R*) 등이 포함되어 '진취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7 이상이었다. 요인 5는 모두 3개 문항으로 독특한-평범한, 개성있는-개성없는,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이 포함되어 '현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68 이상이었다. 요인 6은 모두 4개 문항으로 멋있는-멋없는, 매력있는-매력없는,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 세련된-촌스러운이 포함되어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7 이상이었다.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 이미지 요인으로 추출된 6개 요인의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는 지성, 역능성, 온유성,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이 각각 0.84, 0.84, 0.83, 0.77, 0.78, 0.80으로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치를 보였다.

dCollection @ sungshin

2.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실험설계 A(표 1 참조)에서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안경은 지성, 온유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안경별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지성 차원의 경우 금속테나 뿔테를 착용했을 때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지성이 높게 지각된 반면, 온유성 차원의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금속테나 뿔테를 착용했을 때보다 온유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안경 착용이 지적 능력에 대한 인상을 강화시켜 준다는 고정관념(Kaiser, 1985)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으며, 안경 착용 시, 읽기, 쓰기 같은 더욱 정신적 능력에 적합한 인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Terry와 Krantz(1993)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안경을 착용했을 때 온유성이 낮게 지각된다는 결과는 안경 착용 시 인상이 날카로와 보인다는 정수정(1999)의 연구와는 유사하였으나 안경을 쓴 남학생이 쓰지 않은 남학생보다 더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해 보인다는 Elman(1997)의 연구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것은 지각대상자가 30대 남성의 정장 차림이었던 본 연구와는 달리 Elman의 연구에서는 20대 남자 대학생의 캐주얼 차림에 대한 평가 결과였으므로, 지각대상자의 옷차림이나 연령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리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즉, 학생을 연상시키는 캐주얼 차림에서의 안경착용과 달리 회사원을 연상시키는 정장차림에서의 안경착용은 좀 더 차가운 인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dCollection @ sungshin

<표 6>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변량원		*df*	지성 *F*	역능성 *F*	온유성 *F*	진취성 *F*	현시성 *F*	매력성 *F*
안경(A)		2	6.06**	.59	6.21**	2.95	1.89	2.53
넥타이(B)		2	6.26**	5.90**	2.11	5.09**	1.09	.41
헤어스타일(C)		1	14.02***	2.61	.01	18.43***	12.21**	4.62*
지각자의 안경착용(D)		1	.18	.31	1.03	.94	1.02	.09
A×B		4	.76	6.32***	1.10	13.20***	7.50***	4.38**
A×C		2	.16	.02	.69	.66	.06	.38
A×D		2	.50	.88	1.29	1.17	.34	.97
B×C		2	1.14	2.33	.25	4.20*	3.52*	5.04**
B×D		2	1.57	1.03	.48	.86	2.91	1.83
C×D		1	.16	.76	3.59	1.36	.69	5.60*
A×B×C		4	.36	1.56	1.16	6.31***	2.05	2.13
A×B×D		4	1.23	.60	.99	.67	1.34	1.25
A×C×D		2	.25	1.96	1.68	.39	.24	.25
B×C×D		2	1.19	.60	.20	2.34	1.29	1.14
A×B×C×D		4	.52	1.16	.70	.79	.35	.80
변인	속성	*N*	*M*	*M*	*M*	*M*	*M*	*M*
안경	금속테	156	5.13a	4.29	4.01b	4.02	2.79	3.91
	뿔테	159	4.98a	4.22	4.13b	3.86	2.66	3.62
	비착용	159	4.77b	4.17	4.35a	3.84	2.55	3.72
넥타이	남색	158	5.10a	4.20b	4.08	3.77b	2.59	3.72
	빨강색	157	5.00a	4.41a	4.14	4.02a	2.78	3.80
	넥타이무	159	4.79b	4.07b	4.27	3.94a	2.62	3.73
헤어 스타일	일반형	236	5.09	4.15	4.17	3.75	2.47	3.61
	스포츠형	238	4.84	4.30	4.16	4.07	2.86	3.85
지각자의 안경착용	착용	226	4.94	4.24	4.12	3.86	2.71	3.72
	비착용	248	4.98	4.21	4.20	3.95	2.62	3.77

*p<.05, **p<.01, ***p<.0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한편, 금속테와 뿔테는 지성과 온유성 차원에서 비슷한 평균치(5.13a, 4.98a / 4.01b, 4.13b)를 보여 안경테의 종류는 지성과 온유성 이미지 지각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넥타이는 지성, 역능성, 진취성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온유성, 현

dCollection @ sungshin

시성, 매력성 차원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넥타이별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지성 차원에서 남색이나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지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넥타이를 맨 사람은 유능하게,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사람은 무능하게, 부정적으로 지각된다는 Molloy(2005)의 실험과도 일부 유사하였다. 역능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넥타이가 남색이나 비착용한 경우보다 역능성이 뛰어나게 평가되었고, 진취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넥타이나 비착용의 경우가 남색 넥타이보다 진취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빨강색 넥타이가 역능성이 뛰어나다는 김현지(2003)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하며, 빨강색이 활동, 건강, 정열의 상징한다는 내용(Davis, 1980)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도 빨강색 넥타이는 활동적이며 힘이 있고 진취적이며 젊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스타일은 지성,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헤어스타일별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지성 차원에서 일반형 헤어스타일이 스포츠형 헤어스타일보다 지성이 높게 지각된 반면,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 차원에서는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이 일반형 헤어스타일보다 진취적이고 눈에 띄며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이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는 강승희(2005)의 연구 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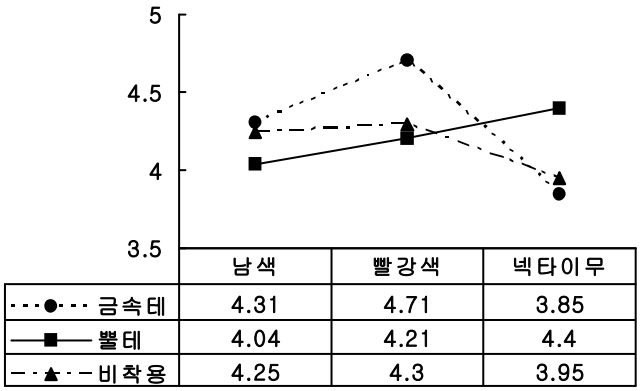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는 모든 차원의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매력성 평가에서는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가 헤어스타일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표 6>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역능성은 안경과 넥타이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5>와 같다.

전반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금속테, 안경 비착용, 뿔테의 순으로 역

dCollection @ sungshin

능성이 지각되어 넥타이 착용 시 뿔테는 역능성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넥타이 색이나 착용여부에 따라 역능성 평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금속테의 경우, 넥타이를 착용한 것이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 역능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이 중,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역능성이 가장 높게 지각되었다. 반면, 뿔테의 경우, 노타이 차림이 역능성이 가장 높게 지각되었으며,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역능성이 낮게 지각되었는데, 이는 짙은 회색 정장에 검정색 뿔테와 남색 넥타이의 조합의 경우, 어두운 계통이 중복되면서 답답하면서 활동적이지 못한 인상을 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힘있고 활동적으로 지각되기 위해서 금속테에는 빨강색 넥타이를, 뿔테에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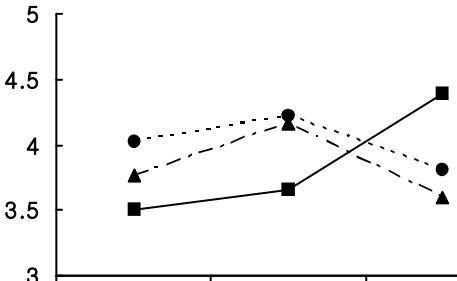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금속테	4.31	4.71	3.85
뿔테	4.04	4.21	4.4
비착용	4.25	4.3	3.95

<그림 5> 젊은층 남성의 역능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6>은 젊은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이다.

dCollection @ sungshin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금속테	4.03	4.22	3.81
뿔테	3.5	3.66	4.39
비착용	3.77	4.1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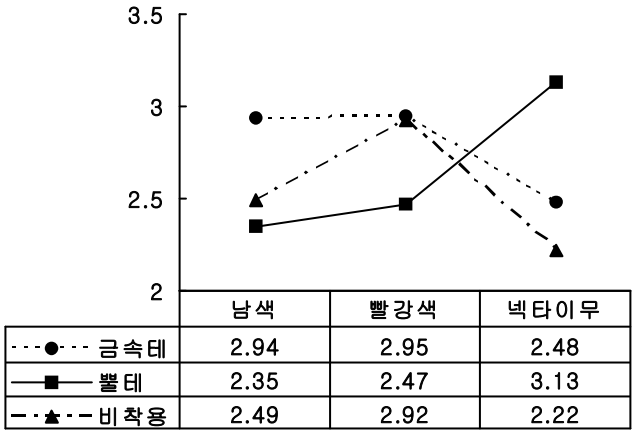
<그림 6> 젊은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

전반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금속테, 안경 비착용, 뿔테의 순으로 진취성 평가가 높게 지각되어 넥타이 착용 시, 뿔테는 역능성에 이어(그림 5) 진취성 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안경 변인별로, 안경을 쓰지 않았거나 금속테를 착용한 경우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진취성 평가가 다소 높게 지각되었으나 넥타이 변인에 따른 진취성 평가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반면, 뿔테를 착용한 경우에는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보다 노타이 차림이었을 때 월등하게 진취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작된 사각 뿔테 안경의 유행(정세진, 2007; 김윤희, 2009)과 2005년부터 시작된 쿨 비즈(cool biz) 경향 즉, 노타이 비즈니스 정장에 관한 유행(이동훈, 2008)과 관련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젊은층 남성은 뿔테를 착용했을 때는 노타이 차림이, 금속테를 착용했을 때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보다 진취적이고 현대적으로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은 젊은층 남성의 현시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

dCollection @ sungshin

용효과이다.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금속테	2.94	2.95	2.48
뿔테	2.35	2.47	3.13
비착용	2.49	2.92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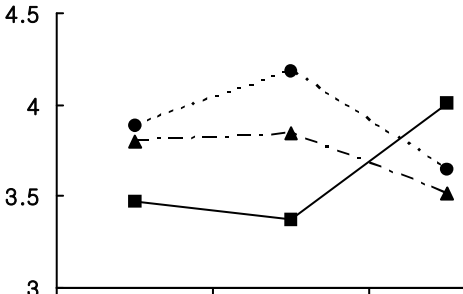
<그림 7> 젊은층 남성의 현시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

전반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금속테, 안경 비착용, 뿔테의 순으로 현시성이 지각되어 넥타이 착용 시, 뿔테는 역능성, 진취성 평가에 이어(그림 5, 6) 현시성 차원에서도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안경 변인별로 금속테와 뿔테는 넥타이 색에 따라 현시성 평가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노타이 차림에서 금속테는 현시성이 낮게, 뿔테는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안경을 쓰지 않는 경우는 넥타이 변인에 따라 현시성 평가에 영향을 주어 남색 넥타이보다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노타이 차림에서는 현시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이는 파랑색 넥타이보다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현시성이 높게 지각된 최유진(2003)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로 현시성 평가에 있어 넥타이의 색은 안경을 착용했을 때보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큰 영향을 주는 단서로 해석된다. 따라서 금속테는 넥타이를

dCollection @ sungshin

함께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안경을 쓰지 않을 때에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개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그림 8>은 젊은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이다.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금속테	3.89	4.18	3.65
뿔테	3.47	3.37	4.01
비착용	3.8	3.84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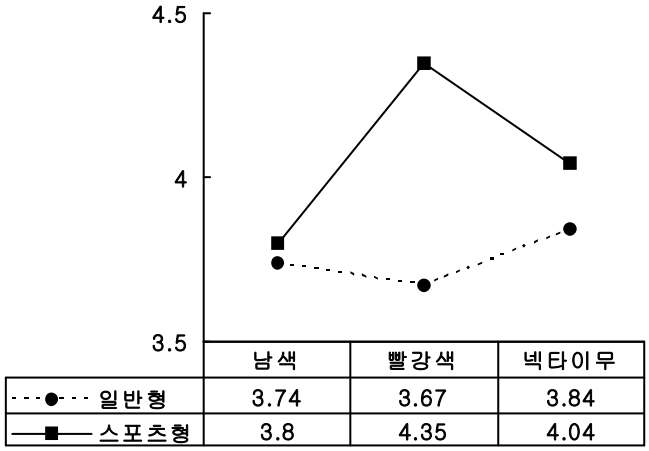
<그림 8> 젊은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

전반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금속테, 안경 비착용, 뿔테 순으로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어 넥타이 착용 시, 뿔테는 역능성, 진취성, 현시성 평가에 이어(그림 5-7) 매력성 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안경 변인별로 보면,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넥타이 변인에 따라 매력성 평가에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금속테, 뿔테는 매력성 평가에 차이를 보였다. 즉, 금속테의 경우 남색 넥타이나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매력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뿔테의 경우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보다 착용하지 않았을 때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매력적이며 세련되게 지각되기 위해 금속테에 빨강색 넥타이, 뿔테

dCollection @ sungshin

에 노타이 차림의 조합이 바람직하며, 뿔테에 빨강색 넥타이의 조합은 가장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림 9>는 젊은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이다.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일반형	3.74	3.67	3.84
스포츠형	3.8	4.35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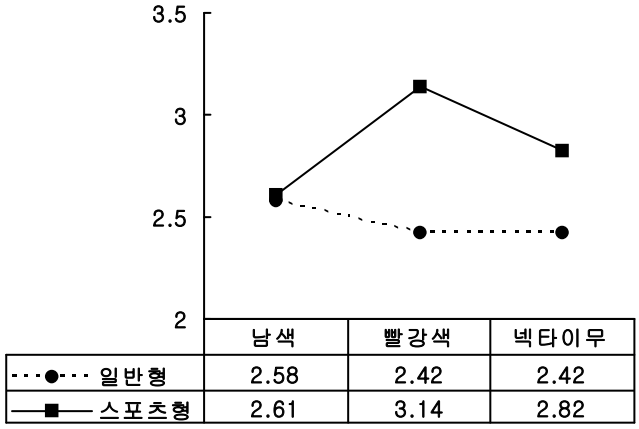
<그림 9> 젊은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일반형 헤어스타일인 경우, 대체로 진취성에 대한 평가가 낮았고, 넥타이 변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빨강색 넥타이 착용 시, 진취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반면,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의 경우,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진취성이 월등히 높게 지각되었으며, 넥타이무, 남색 넥타이 순으로 평가되어 진취성 평가에 대한 빨강색 넥타이의 착용은 헤어스타일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활동과 정열의 상징인 빨강색(Davis, 1980)의 넥타이와 전통적인 이미지의 일반형 헤어스타일의 조합이 진취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활동적으로 보이는 스포츠형

dCollection @ sungshin

헤어스타일과의 조합은 진취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젊은층 남성은 진취적이고 현대적이며 젊게 지각되기 위하여 일반형보다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이 좋으며,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에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10>은 젊은층 남성의 현시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이다.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일반형	2.58	2.42	2.42
스포츠형	2.61	3.14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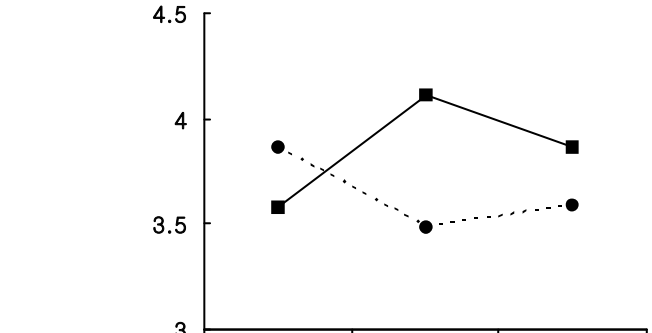
<그림 10> 젊은층 남성의 현시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일반형 헤어스타일인 경우, 대체로 현시성에 대한 평가가 낮았고 넥타이 변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색 넥타이 착용 시, 빨강색이나 비착용의 경우보다 현시성이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의 경우,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현시성 평가가 월등히 높게 지각되었으며, 넥타이무, 남색 넥타이 순으로 평가되어 <그림 9>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dCollection @ sungshin

젊은층 남성의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에 빨강색 넥타이 착용은 진취적으로 지각될 뿐만 아니라 눈에 띄며 개성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은 젊은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이다.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일반형	3.86	3.48	3.59
스포츠형	3.58	4.11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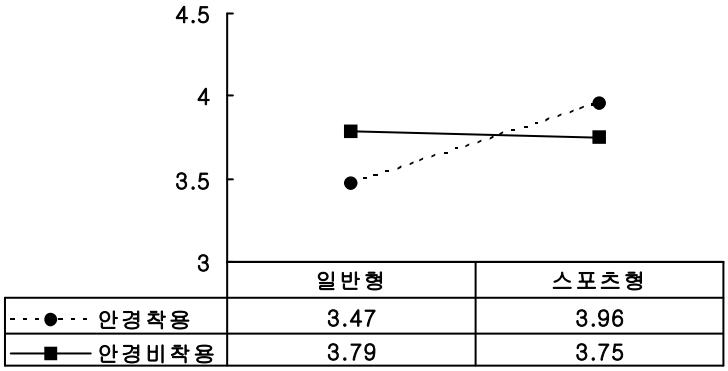
<그림 11> 젊은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일반형 헤어스타일의 경우,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매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빨강색 넥타이의 경우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의 경우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매력성이 가장 높게,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낮게 평가되어 넥타이 색에 대한 매력성 평가는 헤어스타일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저채도, 저명도인 남색 넥타이의 경우, 품위있고 단정하며 신중한 이미지를 주므로(최유진, 2003) 스포츠형보다 전통적인 이미지의 일반형 헤어스타일과 조화되고, 빨강색 넥타이는 화려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주므로(최유진, 2003) 일반형

dCollection @ sungshin

보다 활동적으로 보이는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이 조화되어 매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2>는 젊은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헤어스타일과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의 상호작용효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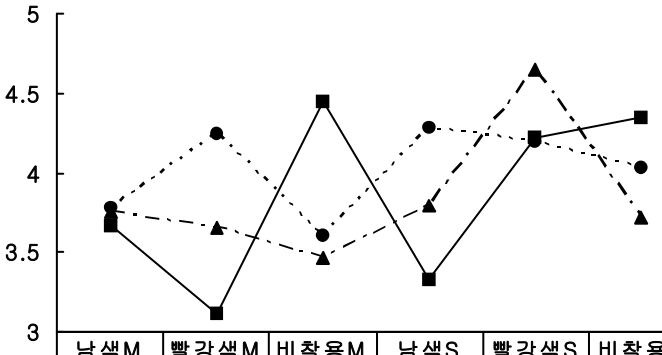
	일반형	스포츠형
안경착용	3.47	3.96
안경비착용	3.79	3.75

<그림 12> 젊은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헤어스타일과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의 상호작용효과

안경 비착용 집단은 헤어스타일에 따른 매력성 평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안경 착용 집단은 차이를 보여 일반형 헤어스타일보다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을 더 매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안경 착용 집단은 안경 비착용 집단에 비해 일반형 헤어스타일 자극물을 보다 매력성이 낮게, 스포츠형 헤어스타일 자극물을 보다 매력성이 높게 평가하였다.

젊은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는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dCollection @ sungshin



	남색M	빨강색M	비착용M	남색S	빨강색S	비착용S
금속테	3.78	4.24	3.6	4.28	4.19	4.03
뿔테	3.67	3.11	4.45	3.33	4.22	4.34
비착용	3.75	3.66	3.47	3.79	4.65	3.72

M: 일반형 헤어스타일, S: 스포츠형 헤어스타일

<그림 13> 젊은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금속테를 착용한 경우, 일반형 헤어스타일에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와 대부분의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에서 진취성 평가가 높게 지각되었고, 일반형 헤어스타일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진취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반면, 뿔테를 착용한 경우, 일반형 헤어스타일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에 빨강색 넥타이 혹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진취성이 높았고, 일반형 헤어스타일에 빨강색 넥타이의 경우, 진취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어 금속테 착용 시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자극물에서 진취성 평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에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진취성이 훨씬 높게 지각되었다.

따라서 진취적이고 현대적이며 젊게 지각되기 위하여 젊은층 남성은 뿔

dCollection @ sungshin

테를 착용하고 일반형 헤어스타일에 노타이 차림, 혹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에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뿔테에 일반형 헤어스타일과 빨강색 넥타이의 조합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dCollection @ sungshin

3.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색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실험설계 B에서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색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주효과를 보면 안경은 지성 차원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안경별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지성 차원에서 안경을 착용한 경우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지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표 6>의 젊은층 안경 변인의 주효과와 유사한 결과이나 젊은층과는 달리 온유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안경유무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효과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넥타이 역시 지성 요인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지성, 역능성, 진취성 요인에 유의적 영향을 보였던 젊은층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년층 남성의 역능성, 진취성 평가의 경우, 젊은층과는 달리 넥타이와 같은 액세서리의 영향보다 연령과 같은 신체적 외모 단서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넥타이별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지성 차원에서 남색이나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지성이 높게 지각되어 젊은층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헤어색은 지성, 역능성,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온유성, 진취성, 현시성 차원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헤어색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지성, 역능성, 매력성 차원 모두에서 회색 머리가 검정색 머리보다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검정색 헤어스타일이 밝은 색

dCollection @ sungshin

<표 7>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색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변량원		*df*	지성 *F*	역능성 *F*	온유성 *F*	진취성 *F*	현시성 *F*	매력성 *F*
안경(A)		1	17.28***	.21	.43	.48	.83	.73
넥타이(B)		2	8.70***	1.17	1.50	1.11	1.52	.38
헤어색(C)		1	8.75**	21.22***	3.55	2.19	2.69	19.48***
지각자의 안경착용(D)		1	.33	.28	.00	.43	.49	.14
A×B		2	.94	.44	3.16*	.27	.15	.69
A×C		1	2.34	.26	1.67	.23	2.80	.57
A×D		1	.72	.01	6.14*	.12	.48	.07
B×C		2	1.57	.62	1.07	1.71	2.29	.70
B×D		2	.35	.50	.03	1.67	2.72	.30
C×D		1	.97	.01	9.24**	.44	.36	.54
A×B×C		2	.29	5.49**	.90	1.76	1.76	3.44*
A×B×D		2	2.07	1.81	2.29	1.13	2.22	.40
A×C×D		1	.78	.65	.04	.20	1.56	.69
B×C×D		2	.90	.77	.03	.42	.44	.34
A×B×C×D		2	.92	2.15	.98	1.21	.11	.76
변인	속성	*N*	*M*	*M*	*M*	*M*	*M*	*M*
안경	유	160	5.02	3.97	3.52	2.70	2.52	3.31
	무	157	4.61	4.04	3.54	2.64	2.43	3.21
넥타이	남색	104	4.90a	4.08	3.51	2.71	2.38	3.29
	빨강색	108	5.01a	4.00	3.41	2.53	2.38	3.30
	넥타이무	105	4.54b	3.92	3.67	2.77	2.66	3.19
헤어색	회색	157	4.94	4.23	3.65	2.76	2.61	3.51
	검정색	160	4.70	3.77	3.41	2.58	2.34	3.01
지각자의 안경착용	착용	144	4.76	4.03	3.54	2.72	2.53	3.22
	비착용	173	4.87	3.98	3.52	2.63	2.43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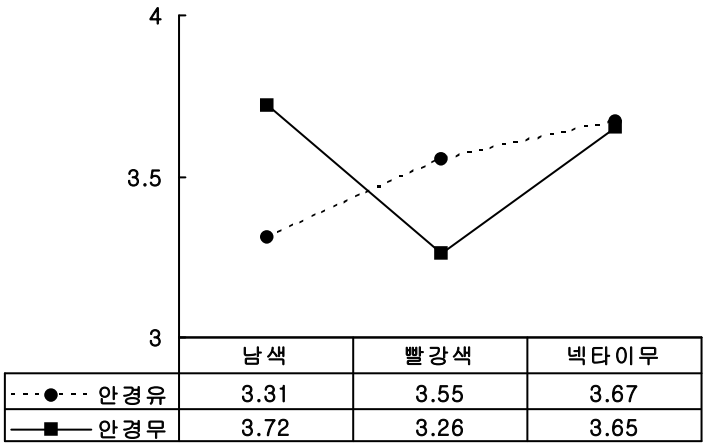
*p<.05, **p<.01, ***p<.0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헤어스타일보다 활동성이 높게 지각되었다는 하경연(2006)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것은 지각대상자가 정장 재킷을 착용한 노년층 남성이었던 본 연구와는 달리 선행연구는 지각대상이 캐주얼 티셔츠 차림의 20대 초반의 남성이므로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의복에 따른 차이로 풀이된다. 즉, 60대 노년층과 20대의 헤어색에 따른 역능성 판단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

dCollection @ sungshin

으며, 의복, 안경, 넥타이 등의 외적 단서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 하겠다. 따라서 노년층 남성의 짙은 색 정장과 흰머리가 일부 섞인 그레이쉬한 헤어스타일의 조합은 검정색으로 염색한 헤어스타일과의 조합보다 지성적이고 매력적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고 활동적이며 힘있는 CEO 스타일의 외모로 인식되어 인상형성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높았으므로 추후 노령층 남성의 염색 효과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시 된다.

<그림 14>는 노년층 남성의 온유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이다.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안경유	3.31	3.55	3.67
안경무	3.72	3.26	3.65

<그림 14> 노년층 남성의 온유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넥타이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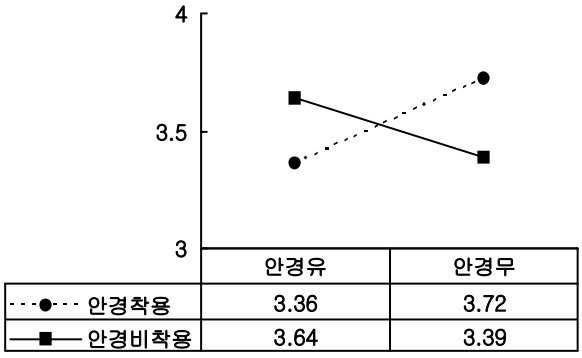
<그림 14>에서 남색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안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가장 온유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는 안경을 쓴 경우가 쓰지 않는 경우보다 더 온유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경유무에 따른 온유성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색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노년층은 평범한

dCollection @ sungshin

차림이므로 온유한 느낌을 준 것으로 보여지며, 빨강색 넥타이는 현시성이나 개성이 높은 색(최유진, 2003)으로 안경과 같은 기능적인 액세서리와 함께 착용함으로서 지각자의 시선이 분산되어 오히려 온화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노타이 차림의 경우에는 캐주얼 셔츠와 같이 편한 느낌을 주므로(강승민, 2008) 안경보다 영향이 더 커서 안경착용여부와 관계없이 온유하게 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15>는 노년층 남성의 온유성 평가에 대한 지각대상자의 안경유무와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의 상호작용효과이다.



	안경유	안경무
안경착용	3.36	3.72
안경비착용	3.64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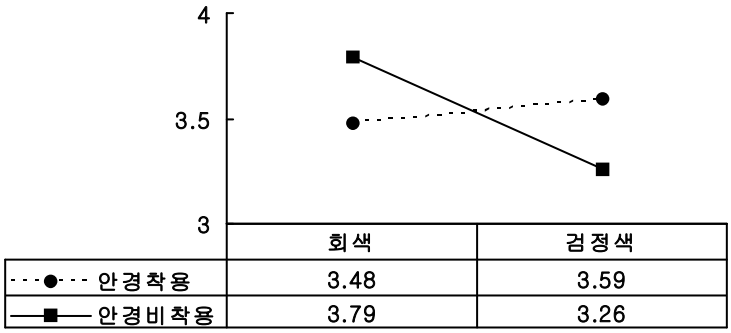
<그림 15> 노년층 남성의 온유성 평가에 대한 안경과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의 상호작용효과

안경을 착용하는 지각자는 안경을 쓴 남성보다 안경을 쓰지 않은 남성에 대해 온유성이 높다고 지각한 반면, 평소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지각자는 안경을 쓴 남성을 온유성이 높게, 안경을 쓰지 않은 남성을 온유성이 낮게 지각하여 타인과 자신과의 유사-호의 효과에 위배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평소 안경을 착용하는 여성의 경우, 여성으로서의 인상이 부정적

dCollection @ sungshin

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 안경을 씀으로 해서 느끼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안경을 착용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정수정, 1999), 안경을 쓰지 않은 여성은 안경에 대한 호기심이나 안경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지적 이미지 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안경을 쓴 노년층 남성을 더 온유하며 친절하게 지각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림 16>은 노년층 남성의 온유성 평가에 대한 헤어색과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와의 상호작용효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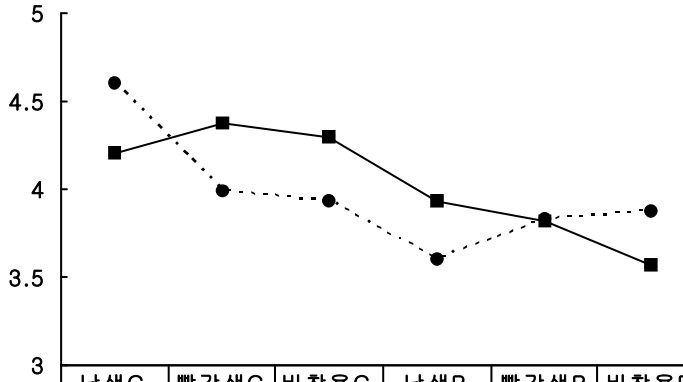
	회색	검정색
안경착용	3.48	3.59
안경비착용	3.79	3.26

<그림 16> 노년층 남성의 온유성 평가에 대한 헤어색과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의 상호작용효과

안경을 쓰는 지각자는 노년층 헤어색에 따른 온유성 평가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안경을 쓰지 않는 지각자는 검정색 머리보다 회색 머리에 대해 온유성을 매우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는 여대생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노년층의 헤어색이 검정색인 것과 회색인 것의 차이를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는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추측된다.

dCollection @ sungshin

노년층 남성의 역능성 평가는 안경, 넥타이, 헤어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남색G	빨강색G	비착용G	남색B	빨강색B	비착용B
안경유	4.6	3.99	3.93	3.6	3.83	3.87
안경무	4.2	4.38	4.3	3.93	3.82	3.57

G: 회색 헤어스타일, B: 검정색 헤어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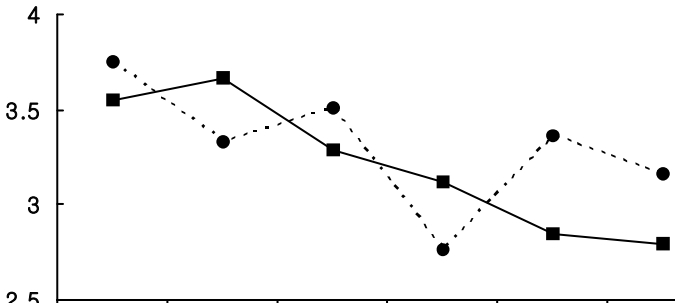
<그림 17> 노년층 남성의 역능성 평가에 대한 안경, 넥타이,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안경을 착용한 경우, 회색 머리에 남색 넥타이를 했을 때 역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검정색 머리에 남색 넥타이는 역능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즉, 짙은 회색 정장에 검정색 뿔테 안경, 검정색으로 염색한 헤어스타일, 남색 넥타이의 저채도, 저명도의 중복된 조합은 역능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회색 머리에 빨강색 넥타이 혹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역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검정색 머리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역능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이는 <표 7>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안경을 착용한 남성보다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성이 낮게 지각되었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연

dCollection @ sungshin

령처럼 보이는 검정색 머리의 노년층 남성이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비활동적으로 지각하여 역능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년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는 안경, 넥타이, 헤어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남색G	빨강색G	비착용G	남색B	빨강색B	비착용B
안경유	3.75	3.33	3.51	2.76	3.36	3.16
안경무	3.55	3.66	3.29	3.12	2.85	2.79

G: 회색 머리, B: 검정색 머리

<그림 18> 노년층 남성의 매력성 평가에 대한 안경, 넥타이,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안경을 착용한 노년층 남성은 회색 머리에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매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검정색 머리에 남색 넥타이를 한 경우 매력성이 가장 낮았다. 이는 <그림 17>의 역능성 평가와 비슷한 결과로 정장, 넥타이, 안경, 헤어스타일의 중복된 저명도, 저채도의 조합은 매력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노년층은 회색 머리에 빨강색, 남색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매력성이 비교적 높게 지각되었으며,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검정색 머리는 매력성이 낮게

dCollection @ sungshin

지각되었다. 이는 <그림 17> 역능성 평가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검정색 머리에 노타이 차림인 노년층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매력이 없으며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dCollection @ sungshin

4. 남성의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 헤어색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실험설계 C에서 젊은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젊은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변량원		*df*	지성 *F*	역능성 *F*	온유성 *F*	진취성 *F*	현시성 *F*	매력성 *F*
모자(A)		2	2.20	6.41**	.64	.53	.95	5.13**
목걸이(B)		1	1.99	5.99*	.61	4.47*	27.96***	2.26
A×B		2	2.16	.40	.99	.82	.48	1.83
변인	속성	*N*	*M*	*M*	*M*	*M*	*M*	*M*
모자	야구모자	56	3.54	4.76b	3.81	4.52	3.43	3.27a
	클로시	52	3.40	4.49b	4.05	4.40	3.16	2.79b
	비착용	52	3.74	5.18a	3.94	4.39	3.18	3.48a
목걸이	착용	79	3.65	5.00	4.00	4.56	3.76	3.32
	비착용	81	3.47	4.62	3.86	4.32	2.77	3.04

*p<.05, **p<.01, ***p<.0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모자와 목걸이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며 주효과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모자는 역능성, 매력성 차원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모자별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역능성 차원의 경우,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야구모자나 클로시를 착용한 경우보다 더 역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즉, 모자를 쓰게 되면 얼굴의 일부를 가리게 되고 얼굴에 그림자가 생겨 어두워 보이므로 활동성이나 용감함 등 역능성이 떨어지게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착용한 경우보다 활동성이 뛰어나게 지각되었다는 정해선, 강경자(2004a)의 연구와 같은 결

dCollection @ sungshin

과라고 할 수 있다. 매력성 차원에서 야구모자, 모자를 비착용한 남성은 클로시를 착용한 남성보다 더욱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야구모자가 젊은층이 착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자이므로 친숙하게 보이는 반면, 클로시는 젊은 남성들이 흔하게 쓰는 모자가 아니므로(이진희, 2002) 매력적이지 않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목걸이는 역능성, 진취성, 현시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목걸이 착용여부에 따른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역능성, 진취성, 현시성 차원에서 모두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즉, 목걸이를 착용한 젊은층 남성은 착용하지 않은 남성보다 자신감 있고 활동적이며 진취적이고 개성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설계 D에서 노년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헤어색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자와 헤어색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며 주효과에서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모자는 6개 차원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헤어색은 지성, 온유성,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회색 머리가 검정색 머리보다 지성, 온유성, 매력성이 모두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표 7>의 정장 차림에서 검정색 머리보다 회색 머리가 지성, 역능성, 매력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노년층 남성은 정장 스타일뿐만 아니라 캐주얼 티셔츠를 입은 경우도 검정색 머리보다 흰머리가 있더라도 자연스러운 회색 머리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sungshin

<표 9> 노년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헤어색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변량원		*df*	지성 *F*	역능성 *F*	온유성 *F*	진취성 *F*	현시성 *F*	매력성 *F*
모자(A)		2	2.41	1.77	1.51	1.64	3.00	.19
헤어색(B)		1	11.75**	.01	6.33*	.22	.24	12.34**
A×B		2	2.70	1.00	2.47	.06	1.66	.29
변인	속성	*N*	*M*	*M*	*M*	*M*	*M*	*M*
모자	야구모자	54	3.51	4.53	3.61	3.04	3.24	2.79
	클로시	53	3.49	4.16	3.70	3.02	3.26	2.70
	비착용	52	3.82	4.26	3.34	2.76	2.73	2.71
헤어색	회색	79	3.83	4.30	3.77	2.98	3.13	3.00
	검정색	80	3.38	4.33	3.33	2.91	3.03	2.47

*p<.05, **p<.01

실험설계 E에서 노년층 남성의 넥타이, 정장용 모자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넥타이는 지성, 매력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넥타이별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지성, 매력성 차원에서 넥타이 색에 관계없이 넥타이를 착용한 남성이 착용하지 않은 남성보다 지성, 매력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모자는 지성, 온유성, 현시성, 매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모자 종류에 관계없이 모자를 착용한 경우,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지성, 온유성,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모자를 착용한 경우,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주의집중성이 뛰어나게 지각되었다는 정해선, 강경자(2004a)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페도라를 착용한 것이 베레 착용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최근 복고 열풍과 맞물려 젊은 층에서 유행되고 있는 페도라가(송지혜, 2008; 김영숙, 2008; 김지영, 2009) 베레 보다 친숙하고 멋스러우며 정

dCollection @ sungshin

장 차림에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노년층 남성은 정장 착용 시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인상형성에 도움이 되며 이 중, 특히 페도라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노년층 남성의 넥타이, 정장용 모자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변량원		*df*	지성 *F*	역능성 *F*	온유성 *F*	진취성 *F*	현시성 *F*	매력성 *F*
넥타이(A)		2	6.86**	.87	2.10	1.11	.02	5.23**
모자(B)		2	4.10*	.68	4.85**	4.61	10.30***	6.28**
A×B		4	1.65	2.40	1.60	5.20**	6.50***	1.85
변인	속성	*N*	*M*	*M*	*M*	*M*	*M*	*M*
넥타이	남색	81	4.87a	4.20	4.06	2.89	2.91	3.90a
	빨강색	79	4.82a	4.29	3.71	2.79	2.92	3.89a
	비착용	78	4.42b	4.09	3.94	3.02	2.94	3.39b
모자	페도라	78	4.81a	4.13	4.11a	2.93	3.09a	4.09a
	베레	81	4.50a	4.15	4.00a	3.01	3.26a	3.60b
	비착용	79	4.82b	4.30	3.59b	2.76	2.42b	3.5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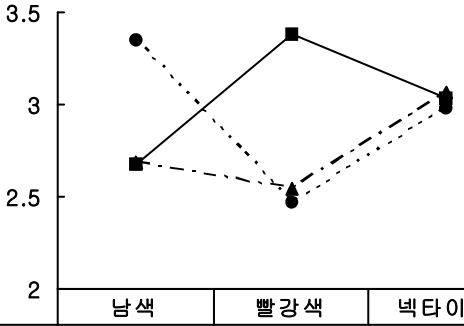
*p<.05, **p<.01, ***p<.0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그림 19>는 노년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모자의 상호작용효과이다.

페도라의 경우,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진취성 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빨강색 넥타이 착용 시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 베레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진취성 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남색 넥타이 착용 시 낮게 평가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대체로 진취성 요인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이었으나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진취성 요인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페도라에는 남색 넥타이를, 베레에는 빨강색 넥타이를, 모

dCollection @ sungshin

자를 쓰지 않을 경우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대적이고 젊으며 진취적으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페도라의 경우 주로 정장용으로 많이 착용되므로 빨강색 넥타이보다 침착하고 차분한 남색 넥타이와 조화되며, 베레의 경우 드레시한 복장과 스포티한 복장에 모두 착용되고 있으므로(이경손, 김희섭, 2000) 남색 넥타이보다 활동과 정열의 상징인 빨강색(Davis, 1996) 넥타이와 잘 조화되어 진취성 지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페도라	3.35	2.47	2.98
베레	2.67	3.38	3.03
비착용	2.68	2.54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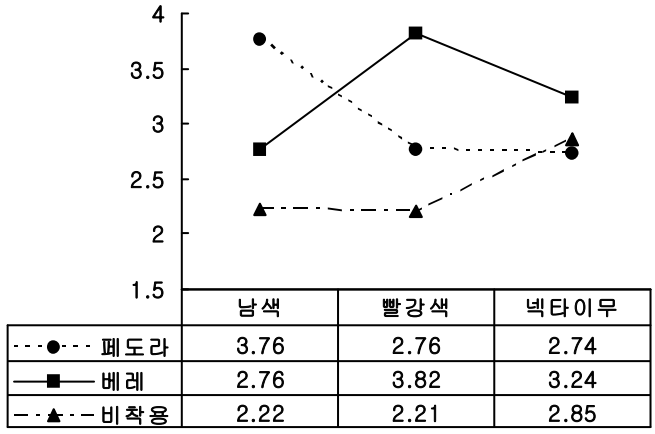
<그림 19> 노년층 남성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정장용 모자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0>은 노년층 남성의 현시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모자의 상호작용효과이다.

페도라의 경우,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하거나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현시성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베레의 경우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dCollection @ sungshin

남색 넥타이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그림 19>의 진취성 평가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페도라에는 남색 넥타이를, 베레에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진취성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현시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넥타이 색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현시성이 다소 높게 지각되었다. 즉, 노년 남성의 정장 재킷, 드레스 셔츠와 자유스러워 보이는 노타이 차림의 조화에 대해 넥타이를 착용한 것보다 개성적이고 눈에 띄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페도라	3.76	2.76	2.74
베레	2.76	3.82	3.24
비착용	2.22	2.21	2.85

<그림 20> 노년층 남성의 현시성 평가에 대한 넥타이와 정장용 모자의 상호작용효과

dCollection @ sungshin

5. 남성의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

젊은층 남성의 넥타이, 헤어스타일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에 따른 월소득과 연령 추론의 차이

변량원		*df*	월소득 *F*	연령 *F*
안경(A)		2	7.92***	.71
넥타이(B)		2	1.31	3.69*
헤어스타일(C)		1	5.45*	24.90***
A×B		4	1.66	.24
A×C		2	.12	2.57
B×C		2	.60	.78
A×B×C		4	.48	.73
변인	속성	*N*	*M*	*M*
안경	금속테	156	3.41a	31.57
	뿔테	159	3.02b	31.77
	비착용	159	3.05b	32.03
넥타이	남색	158	3.11	31.93ab
	빨강색	157	3.26	32.24a
	비착용	159	3.11	31.21b
헤어스타일	일반형	236	3.26	32.58
	스포츠형	238	3.05	31.01

*p<.05, ***p<.0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월소득과 연령은 2개 및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주효과에서 안경은 월소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금속테를 쓴 남성이 뿔테나 안경을 쓰지 않은 남성보다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넥타이는 연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31.21세로 가장 젊게 추론되었다. 이는 2005년부터 시작된 쿨 비즈 경향 즉, 노

dCollection @ sungshin

타이 비즈니스 정장에 관한 유행과 관련있는 결과로 풀이된다(이동훈, 2008).

헤어스타일은 월소득과 연령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반형 헤어스타일이 스포츠형 헤어스타일보다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고,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이 31.01세로 일반형인 32.58세보다 약 1.5세 젊게 추론되었다. 즉, 젊은층 남성의 일반형 헤어스타일은 능력있게 보였으며,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은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인식되었다.

노년층 남성의 넥타이, 헤어색에 따른 월소득과 연령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색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

변량원		*df*	월소득 *F*	연령 *F*
안경(A)		1	7.16**	.15
넥타이(B)		2	13.06***	4.47*
헤어색(C)		1	3.50	49.23***
A×B		2	1.94	2.71
A×C		1	5.77*	4.73*
B×C		2	2.57	.79
A×B×C		2	2.87	.72
변인	속성	*N*	*M*	*M*
안경	유	106	4.26	59.42
	무	157	3.75	59.40
넥타이	남색	104	4.03b	59.08b
	빨강색	108	4.57a	58.32b
	넥타이무	105	3.39c	60.86a
헤어색	회색	157	4.17	61.92
	검정색	160	3.84	56.94

*p<.05, **p<.01, ***p<.001, 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12>에서 주효과를 보면 안경은 월소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안경을 착용한 남성이 안경을 쓰지 않은 남성보다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어

dCollection @ sungshin

젊은층 남성의 월소득 추론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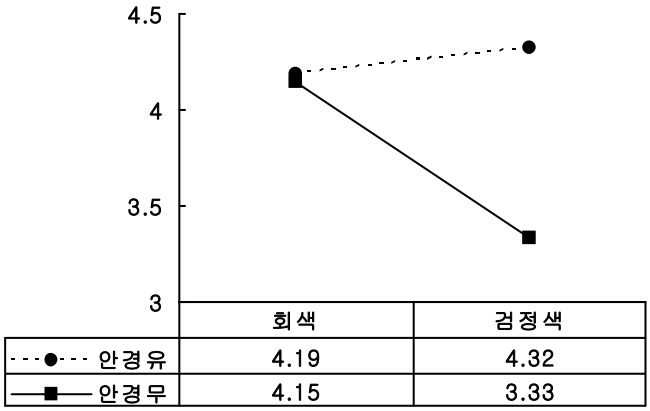
넥타이는 월소득과 연령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젊은층과는 달리 월소득과도 관련이 있었다. 빨강색, 남색, 넥타이무의 순으로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이는 넥타이를 착용한 남성이 착용하지 않은 남성보다 4,000~6,000달러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추론된 Molloy(2005)의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넥타이를 착용한 남성은 착용하지 않은 남성보다 2세 가량 젊게 추론되었다. 이는 넥타이를 착용한 노년층 남성은 노령층이지만 아직 직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기타 소득, 사회활동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노년층 남성보다 월소득과 연령 지각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헤어색은 연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검정색으로 염색한 노년층 남성은 56.94세로 회색 머리(61.92세) 보다 약 4.98세 더 젊게 추론되었다.

월소득은 안경과 헤어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1>과 같다.

안경을 착용했을 때, 검정색 머리가 회색 머리보다 월소득이 다소 높게 추론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염색 여부에 따라 월소득 추론에 큰 차이를 보여 검정색 머리가 회색 머리보다 월소득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는 회색 머리가 염색한 검정색 머리보다 지성, 역능성,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안경 착용은 지성에 관한 평가가 높게 지각되어(표 7) 인상형성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검정색 머리에 안경을 쓰지 않은 노년층 남성에 대해 월소득이 가장 낮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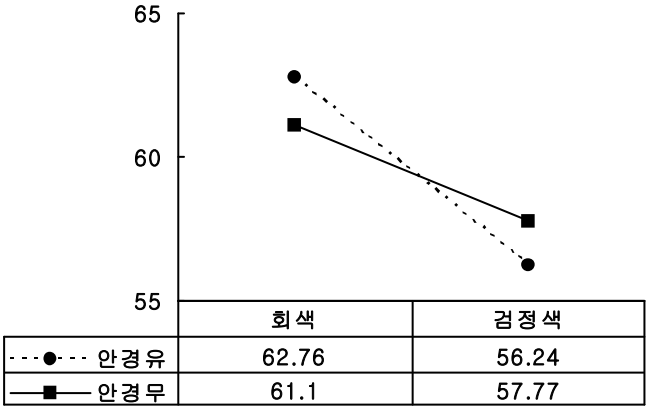
dCollection @ sungshin



	회색	검정색
안경유	4.19	4.32
안경무	4.15	3.33

<그림 21> 노년층 남성의 월소득 추론에 대한 안경과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2>는 노년층 남성의 연령 추론에 대한 안경과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이다.



	회색	검정색
안경유	62.76	56.24
안경무	61.1	57.77

<그림 22> 노년층 남성의 연령 추론에 대한 안경과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dCollection @ sungshin

안경 착용 시, 검정색 머리(56.24세)가 회색 머리(62.76세)보다 약 6.52세 더 젊게 지각되었으며,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검정색 머리(57.77세)가 회색 머리(61.1세)보다 약 3.33세 더 젊게 지각되었다. 즉, 안경착용여부와 관계없이 회색 머리보다 검정색 머리가 더 젊게 지각되기는 하였으나 염색여부에 따른 연령효과는 안경 착용자가 2배 가량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층이 안경을 착용하면서 검정색 머리로 염색하는 경우는 보다 젊은층으로 지각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젊은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에 따른 월소득과 연령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면, 젊은층은 캐주얼 모자와 목걸이 착용에 따른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젊은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에 따른 월소득과 연령 추론의 차이

변량원		*df*	월소득 *F*	연령 *F*
모자(A)		2	.53	1.21
목걸이(B)		1	.30	.96
A×B		2	1.49	2.18
변인	속성	*N*	*M*	*M*
모자	야구모자	56	2.48	30.32
	클로시	52	2.33	29.71
	비착용	52	2.27	30.62
목걸이	착용	79	2.41	29.98
	비착용	81	2.32	30.46

노년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헤어색에 따른 월소득과 연령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dCollection @ sungshin

<표 14> 노년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헤어색에 따른 월소득과 연령 추론의 차이

변량원		*df*	월소득 *F*	연령 *F*
모자(A)		2	.85	7.77**
헤어색(B)		1	.18	32.72***
A×B		2	5.62**	3.11*
변인	속성	*N*	*M*	*M*
모자	야구모자	54	2.20	53.78b
	클로시	53	1.94	55.53b
	비착용	52	2.13	58.37a
헤어색	회색	79	2.13	58.61
	검정색	80	.06	53.15

*p<.05, **p<.01, ***p<.0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모자와 헤어색 모두 연령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월소득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모자를 착용하는 것은 착용하지 않은 것보다 약 3-5세 정도 더 젊게 추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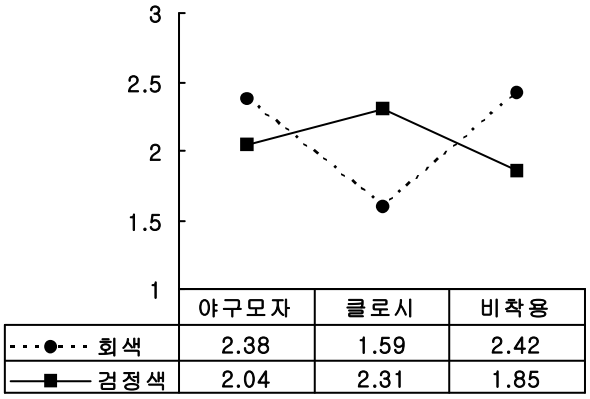
검정색 머리는 회색 머리보다 5.46세 더 젊게 추론되어 <표 12>의 정장 차림에서의 연령 추론 결과와(4.98세) 유사하였다. 즉, 노년층 남성의 염색 여부는 캐주얼 차림이나 정장 차림 모두 연령 추론에 큰 영향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년층 남성은 캐주얼 차림 시, 클로시나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는 것이 젊게 지각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그림 23>은 노년층 남성의 월소득 추론에 대한 캐주얼 모자와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이다.

흰머리가 섞인 회색 머리인 경우, 야구모자를 착용하거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클로시를 착용했을 때보다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반면, 검정색 머리는 클로시를 착용했을 때 월소득이 높다고 추론되었다. 즉,

dCollection @ sungshin

월소득 평가 시 클로시의 착용은 염색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염색을 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클로시가 주로 레저용으로 착용되는 경우가 많고(최인려, 방혜경, 2006), 검정색 머리는 회색 머리보다 젊게 지각된다는 점과(표 14) 관련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즉, 검정색으로 염색한 노년층 남성의 클로시 착용은, 젊게 지각되어 직업이 있으면서 '레저용'으로 착용한 것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게 추론되고, 염색을 하지 않아 흰머리가 섞인 노년층 남성의 클로시 착용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직업이 없고 '일상생활용'으로 착용한 것으로 월소득 추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야구모자	클로시	비착용
회색	2.38	1.59	2.42
검정색	2.04	2.31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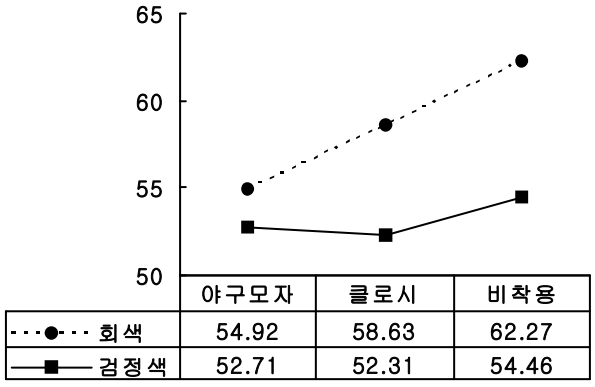
<그림 23> 노년층 남성의 월소득 추론에 대한 캐주얼 모자와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4>는 노년층 남성의 연령 추론에 대한 캐주얼 모자와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이다.

회색 머리의 경우, 야구모자, 클로시, 비착용의 순으로 연령이 젊게 추론되었다. 즉, 모자는 회색 머리를 가려줌으로서 외모를 보완하고 연령 추론

dCollection @ sungshin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검정색 머리 역시, 모자를 착용했을 때 더 젊게 추론되었고 모자 종류에 의한 연령차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노년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 착용은 염색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지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검정색 머리의 연령이 더 젊게 추론되기는 하였으나, 모자 착용으로 인한 연령 감소 효과는 회색 머리에서 더 크게 작용하였다. 즉,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야구모자의 경우, 회색 머리가 7.35세, 검정색 머리가 1.75세 더 젊게 추론되었고, 클로시의 경우, 회색 머리가 3.64세, 검정색 머리가 2.15세로 더 젊게 추론되었으므로 회색 머리의 노년층 남성은 캐주얼 모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젊게 지각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겠다.



	야구모자	클로시	비착용
회색	54.92	58.63	62.27
검정색	52.71	52.31	54.46

<그림 24> 노년층 남성의 연령 추론에 대한 캐주얼 모자와 헤어색의 상호작용효과

노년층 남성의 넥타이, 모자 착용에 따른 월소득과 연령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넥타이는 월소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빨강색, 남색, 넥타이무의 순으

dCollection @ sungshin

로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어 <표 1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모자의 경우는 모자 비착용, 페도라, 베레 순으로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어 월소득 추론에 있어 노년층 남성의 베레 착용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능력있는 노년층으로 보이기 위해서 정장 재킷에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하며 베레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표 15> 노년층 남성의 넥타이, 정장용 모자 착용에 따른 월소득과 연령 추론의 차이

변량원		*df*	월소득 *F*	연령 *F*
넥타이(A)		2	3.96*	.79
모자(B)		2	9.79***	2.15
A×B		4	2.64*	.64
변인	속성	*N*	*M*	*M*
넥타이	남색	81	3.62ab	62.37
	빨강색	79	3.86a	61.52
	넥타이무	78	3.08b	51.21
모자	페도라	78	3.54b	62.90
	베레	81	2.89c	61.15
	비착용	79	4.15a	6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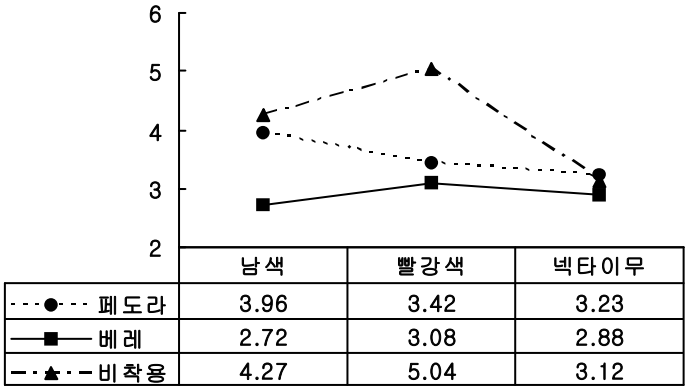
*p<.05, ***p<.001, 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그림 25>는 노년층 남성의 월소득 추론에 대한 넥타이와 정장용 모자의 상호작용효과이다.

페도라는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으나 넥타이 변인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베레 역시, 넥타이 변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반면,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 시 월등히 월소득이 높게 지각되었으며 넥타이를 비착용했을 때 월소득이 낮게

dCollection @ sungshin

지각되었다. 따라서 노년층 남성은 정장착용 시, 페도라엔 남색 넥타이를, 베레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월소득 추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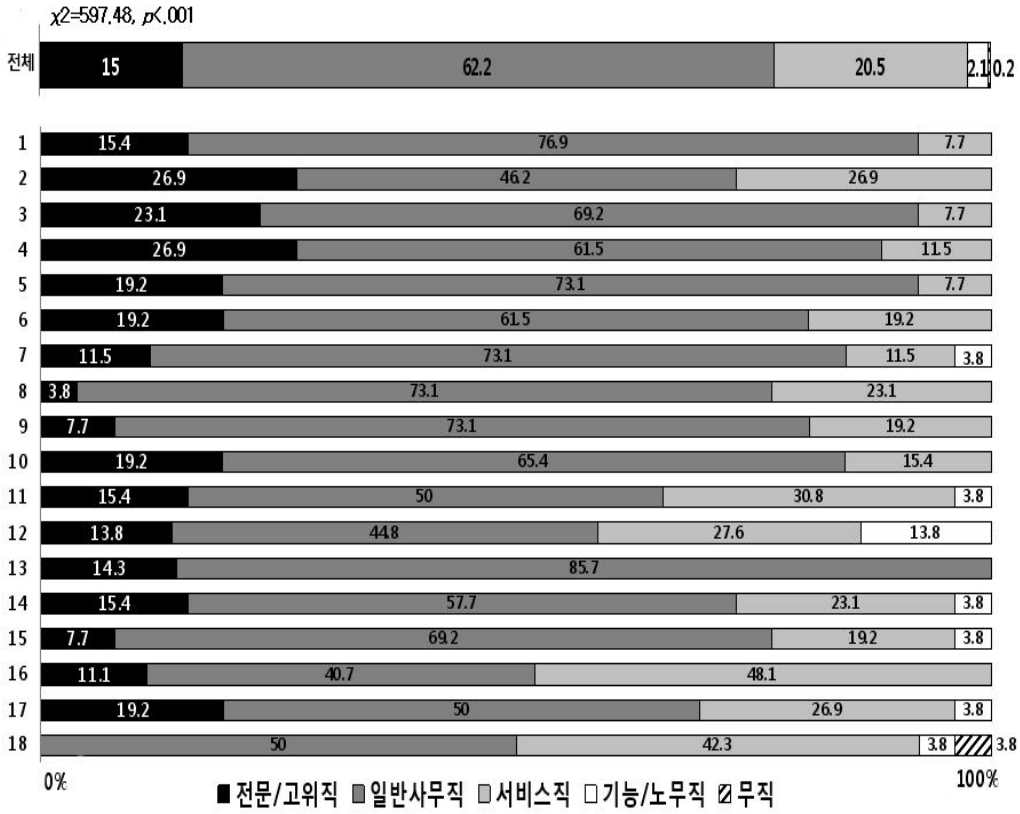
	남색	빨강색	넥타이무
페도라	3.96	3.42	3.23
베레	2.72	3.08	2.88
비착용	4.27	5.04	3.12

<그림 25> 노년층 남성의 월소득 추론에 대한 넥타이와 정장용 모자의 상호작용효과

dCollection @ sungshin

6. 남성 자극물에 대한 직업 추론의 차이

젊은층 정장 자극물의 직업 추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단일표본 χ^2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6>과 같다.



1. 금속테-남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2. 금속테-남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3. 금속테-빨강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4. 금속테-빨강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5. 금속테-넥타이무-일반형 헤어스타일
6. 금속테-넥타이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7. 뿔테-남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8. 뿔테-남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9. 뿔테-빨강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10. 뿔테-빨강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11. 뿔테-넥타이무-일반형 헤어스타일
12. 뿔테-넥타이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13. 안경 비착용-남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14. 안경 비착용-남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15. 안경 비착용-빨강색 넥타이-일반형 헤어스타일
16. 안경 비착용-빨강색 넥타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17. 안경 비착용-넥타이무-일반형 헤어스타일
18. 안경 비착용-넥타이무-스포츠형 헤어스타일

<그림 26> 젊은층 정장 자극물에 대한 직업 추론

dCollection @ sungshin

전체적으로 볼 때 젊은층 정장 자극물은 일반사무직(62.2%)으로 추론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서비스직(20.5%), 전문/고위직(15%), 기능/노무직(2.1%), 무직(0.2%)의 순으로 추론되었다(χ^2=597.48, p<.001).

직업별로 주로 금속테를 착용한 자극물은(2, 3, 4, 5, 6) 다른 자극물보다 전문/고위직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19.2-26.9%). 일반사무직은 주로 안경과 넥타이를 착용하거나(1, 3, 7, 8, 9, 10),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넥타이를 착용한 일반형 헤어스타일의 자극물(13, 15)에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65.4-85.7%). 서비스직은 주로 뿔테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11, 12)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인 경우(14, 16, 18), 안경과 넥타이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17, 18)에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26.9-48.1%). 기능노무직과 무직은 그 비중이 적었으나 뿔테 혹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은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인 자극물에서(12, 18)에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7.6-13.8%). 따라서 젊은층 남성의 정장차림에서 금속테, 넥타이, 일반형 헤어스타일과 같은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단서들의 조합은 전문/고위직 및 일반사무직의 이미지와 부합되지만, 뿔테, 노타이 차림, 스포츠형 헤어스타일과 같은 단서들은 서비스직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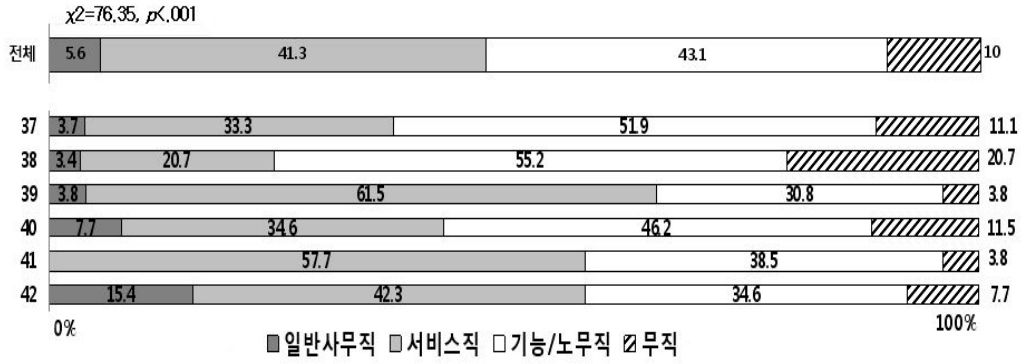
젊은층 캐주얼 자극물의 직업 추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단일표본 χ^2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7>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능/노무직(43.1%), 서비스직(41.3%), 무직(10%), 일반사무직(5.6%)의 순으로 대부분 기능/노무직과 서비스직으로 추론하였고(χ^2=76.358, p<.001), 일반사무직이나 전문/고위직으로 추론한 응답자는 거의 없어 <그림 26>의 정장 자극물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장차림은 캐주얼차림보다 사회적 수준이 높아 보이며 직업 추론에 있어 관리업무를 수행

dCollection @ sungshin

할 것 같다는 Damhorst(198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고 티셔츠만 입은 경우(42)에는 일반사무직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타 자극물이 비해 높았다(15.4%). 서비스직은 목걸이를 착용하고 클로시 착용, 혹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39, 41)가 타자극물에 비해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57.7-61.5%). 기능/노무직은 야구모자를 착용한 경우(37, 38)(51.9%, 55.2%), 무직은 야구모자와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38)에서 타 자극물에 비해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20.7%). 따라서 젊은층 남성의 캐주얼 차림과 야구모자의 조합은 기능직을 연상시키는 단서로, 목걸이와의 조합은 서비스직을 연상시키는 단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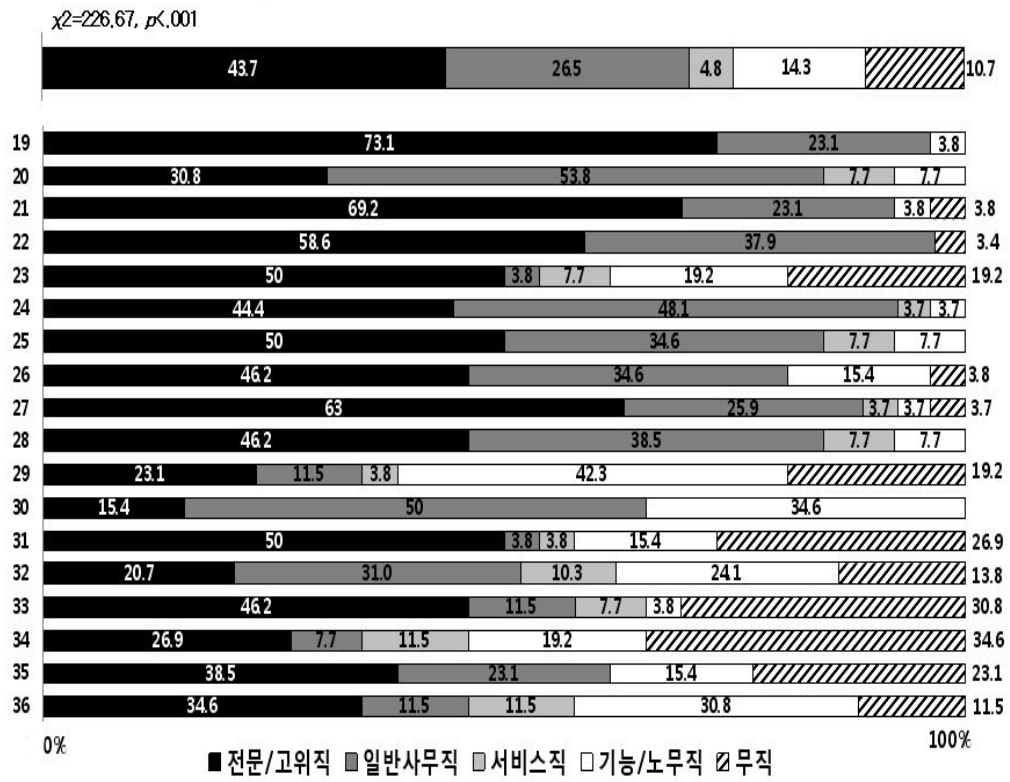
37. 야구모자-목걸이 착용
38. 야구모자-목걸이 비착용
39. 클로시-목걸이 착용
40. 클로시-목걸이 비착용
41. 모자 비착용-목걸이 착용
42. 모자 비착용-목걸이 비착용

<그림 27> 젊은층 캐주얼 자극물에 대한 직업 추론

노년층 정장 자극물의 직업 추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단일표본 χ^2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문/고위직(43.7%), 일반사무직(26.5%), 기능/노무직

dCollection @ sungshin



19. 안경유-남색 넥타이-회색 머리
20. 안경유-남색 넥타이-검정색 머리
21. 안경유-빨강색 넥타이-회색 머리
22. 안경유-빨강색 넥타이-검정색 머리
23. 안경유-넥타이무-회색 머리
24. 안경유-넥타이무-검정색 머리
25. 안경무-남색 넥타이-회색 머리
26. 안경무-남색 넥타이-검정색 머리
27. 안경무-빨강색 넥타이-회색 머리
28. 안경무-빨강색 넥타이-검정색 머리
29. 안경무-넥타이무-회색 머리
30. 안경무-넥타이무-검정색 머리
31. 남색 넥타이-페도라 착용
32. 남색 넥타이-베레 착용
33. 빨강색 넥타이-페도라 착용
34. 빨강색 넥타이-베레 착용
35. 넥타이무-페도라 착용
36. 넥타이무-베레 착용

<그림 28> 노년층 정장 자극물에 대한 직업 추론

(14.3%), 무직(10.7%), 서비스직(4.8%)의 순으로 전문/고위직의 비중이 높았으며(χ^2=226.67, p<.001), <그림 26>의 젊은층 정장자극물의 직업추론과 비교했을 때 전문/고위직, 기능/노무직, 무직의 비중은 높게, 일반사무직,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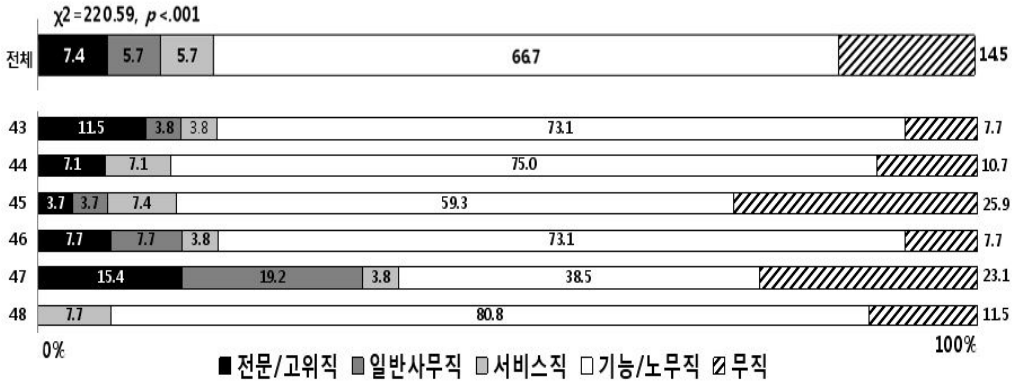
dCollection @ sungshin

비스직의 비중은 낮게 추론되었다.

뿔테 안경에 남색 넥타이를 하고 회색머리인 경우(19) 타자극물 보다 전문/고위직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73.1%). 일반사무직은 주로 검정색 머리인 경우에(20, 24, 28, 30)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38.5-53.8%).

베레를 착용했을 때(32, 34, 36) 타 자극물에 비해 서비스직이 높게 추론되었고(10.3-11.5%), 기능/노무직 역시 베레를 착용했을 때(32, 34, 36)와 안경 및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29, 30) 타자극물에 비해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19.2-42.3%). 빨강색 넥타이와 함께 모자를 착용한 경우에는 무직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33, 30.8% / 34, 34.6%). 이것은 노년층이 눈에 띄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모자까지 착용한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지각되어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 캐주얼 자극물의 직업 추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단일표본 χ^2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9>와 같다.



43. 야구모자-회색 머리
44. 야구모자-검정색 머리
45. 클로시-회색 머리
46. 클로시-검정색 머리
47. 모자 비착용-회색 머리
48. 모자 비착용-검정색 머리

<그림 29> 노년층 캐주얼 자극물에 대한 직업 추론

dCollection @ sungshin

전체적으로 볼 때, 노년층 캐주얼 차림은 기능/노무직(66.7%), 무직(14.5%), 전문/고위직(7.4%), 일반사무직(5.7%), 서비스직(5.7%)의 순으로 대부분 기능/노무직으로 추론되었다(χ^2=220.59, p<.001). 젊은층 직업추론과 비교했을 때 기능/노무직, 서비스직의 비중은 낮게 무직의 비율은 더 높게 추론되었다(그림 27).

기능/노무직은 야구모자를 착용하거나 검정색 머리의 경우(43, 44, 46, 48) 타 자극물에 비해 추론되는 비중이 높아(73.1-80.8%), 야구모자를 착용한 자극물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지각자가 기능직으로 추론된 젊은층 남성의 결과와 유사하였다(그림 27). 즉, 야구모자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작업용'으로도 많이 착용되고 있으며(박주광, 2005), 연령에 관계없이 기능직을 연상시키는 외모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색 머리에 클로시를 착용한 경우(45)에는 무직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는데(25.9%), 이는 본 연구의 <그림 23>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서 염색을 하지 않아 흰머리가 섞인 노년층 남성이 주로 레저용으로 착용되는 클로시(최인려, 방혜경, 2006)를 쓸 경우 나이가 들어 보이고 월소득이 낮게 지각되어 타 자극물에 비해 무직으로 추론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dCollection @ sungshin

7. 남성의 이미지 특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남성의 이미지 특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도 관련 형용사쌍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3문항의 Cronbach의 α신뢰도 계수는 .814이었다(표 16).

<표 16> 선호도 측정 문항

문 항	α신뢰도 계수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싫어하는 호감이 가는 - 호감이 가지 않는 보기 좋은 - 보기 싫은	.814

위의 문항을 합한 '선호도'를 종속변인으로, 각 인상평가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력성 요인은 종속변인인 선호도와의 상관계수가 .79 이상으로 매우 높아 독립변인에서 제거하였으며,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을 보면, 남성 옷차림 선호에는 지각대상자의 연령별로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젊은층의 경우 지성, 온유성, 진취성, 현시성, 역능성의 순으로 영향을 주어 지성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5개 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46.3%였다. 노년층의 경우 온유성, 지성, 진취성, 역능성, 현시성의 순으로 영향을 주어 온유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5개 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50.6%였다. 따라서 남성 옷차림에 대해 지성적이고 역능적이며, 온유하고 진취적이며 현시성이 뛰어난 이미지일수록 선호하였고, 젊은층 남성 옷차림에서는 지성적인 이미지를, 노년층

dCollection @ sungshin

남성 옷차림에서는 온유한 이미지를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남성 옷차림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인상평가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젊은층		노년층	
	beta	*t*	*beta*	*t*
지성	.42	12.90***	.37	11.91***
역능성	.08	2.06*	.11	3.27**
온유성	.28	9.01***	.45	14.72***
진취성	.21	5.52***	.18	4.84***
현시성	.18	4.84***	.08	2.17*
R^2	.463		.506	
F	108.33***		128.87***	

*p<.05, **p<.01, ***p<.001

dCollection @ sungshin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젊은층과 노년층의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 및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고, 각 자극물에 따라 월소득, 연령, 직업이 다르게 추론되는가를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남성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 헤어스타일을 달리한 젊은층 자극물 24개(정장 18개, 캐주얼 6개)와 노년층 자극물 24개(정장 18개, 캐주얼 6개)로 총 48개의 칼라 사진을 제작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여대생 635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의 요인분석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 차원은 지성, 역능성, 온유성,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의 6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2. 젊은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첫째, 안경은 지성, 온유성 차원의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안경 착용 시 지성은 높게, 온유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넥타이는 지성, 역능성, 진취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남색 넥타이는 지성이, 빨강색 넥타이는 지성, 역능성, 진취성이, 노타이 차림은 진취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헤어스타일은 지성,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일반형

dCollection @ sungshin

헤어스타일은 지성이,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은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금속테는 빨강색 넥타이와 함께 착용했을 경우 역능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뿔테는 노타이 차림이었을 때 진취성,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은 빨강색 넥타이와 함께 착용하였을 때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셋째, 안경, 넥타이, 헤어스타일에 따른 진취성 요인의 평가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뿔테에 일반형 헤어스타일을 하고 노타이 차림이었을 경우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에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는 진취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3. 노년층 남성의 안경, 넥타이, 헤어색 및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첫째, 안경과 넥타이는 지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안경, 넥타이를 착용하였을 때 지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헤어색은 지성, 역능성, 매력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정장 차림 시의 회색 머리는 검정색 머리보다 지성, 역능성,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지각자의 안경착용여부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안경과 넥타이에 따라 온유성 평가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안경을 쓴 경우는 노타이 차림이었을 때, 안경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남색 넥타이를 착용하였을 때 온유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셋째, 안경, 넥타이, 헤어색은 역능성, 매력성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회색 머리에 남색 넥타이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회색 머리에 빨강색 넥타이가 매력성과 역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dCollection @ sungshin

4. 남성의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

첫째, 젊은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는 역능성, 매력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모자를 착용한 경우 역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야구모자를 쓴 경우에는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목걸이는 역능성, 진취성, 현시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 역능성, 진취성,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노년층 남성의 헤어색은 지성, 온유성, 매력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캐주얼 차림에서 회색 머리는 검정색 머리보다 지성, 온유성,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어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셋째, 노년층 남성의 정장용 모자는 지성, 온유성, 현시성, 매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모자를 착용한 경우, 지성, 온유성,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페도라를 착용한 경우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상호작용효과에서 페도라는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베레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진취성,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5. 남성의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 착용여부, 헤어스타일에 따른 월소득, 연령 추론의 차이

첫째, 젊은층 남성의 경우, 안경은 월소득 추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금속테는 뿔테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넥타이는 연령 추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노타이 차림이 경우 젊게 추론되었다. 헤어스타일은 월소득과 연령 추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일반형 헤어스타일이 스포츠형 헤어스타일보다 월소득과 연령이 높게 추론되었다.

둘째, 노년층 남성의 경우 안경은 월소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안경 착용 시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넥타이는 월소득과 연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빨강색 넥타이 착용 시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고, 노년층이 넥

dCollection @ sungshin

타이를 착용한 경우는 연령이 더 젊게 추론되었다. 안경과 헤어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에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검정색 머리는 회색 머리보다 월소득이 매우 낮게 추론되었다.

셋째, 노년층 남성의 캐주얼 모자와 헤어색은 모두 연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모자를 착용한 경우, 3-5세 정도 더 젊게 추론되었다. 상호작용효과에서 회색 머리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검정색 머리는 클로시를 착용했을 때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회색 머리인 경우 모자 착용으로 인한 연령 감소 효과는 야구모자가 6세 정도 연령이 낮게 평가되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되었다.

넷째, 노년층 남성의 정장용 모자 착용 시 월소득 추론은 비착용, 페도라, 베레 순으로 추론되었다. 상호작용효과에서 페도라의 경우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빨강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월소득이 매우 높게 추론되었다.

6. 남성 외모에 대한 직업 추론의 차이

첫째, 젊은층의 정장 복장은 일반사무직(62.2%)으로 추론되었으며, 금속테 안경과 일반형 헤어스타일을 하였을 때 전문/고위직 및 일반사무직으로 추론되는 정도가 높았다. 노년층의 정장 복장은 전문/고위직(43.7%)과 일반사무직(26.5%)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 노년층이 정장을 입고 안경과 남색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회색 머리를 하였을 때 전문/고위직으로 추론되는 정도가 높았다(73.1%).

둘째, 젊은층 캐주얼 자극물은 기능/노무직(43.1%)과 서비스직(41.3%)으로 추론되었고, 야구모자를 착용한 경우 타자극물에 비해 기능/노무직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 노년층의 캐주얼 복장은 기능/노무직(66.7%)으로 추론되었다. 야구모자를 착용하거나 검정색 머리를 한 경우 기능/노무직으

dCollection @ sungshin

로 추론되었고, 회색 머리에 클로시를 착용한 경우에 타 자극물에 비해 무직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

7. 남성의 이미지 특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남성의 외모가 지성적이고 역능적이며, 온유하고 진취적이며 현시성이 높을수록 지각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이 중 젊은층 남성 옷차림에서는 지성적인 이미지가, 노년층 남성 옷차림에서는 온유한 이미지가 더 선호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젊은층의 경우 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지성은 높게, 온유성은 낮게 평가되었으며, 금속테를 착용하였을 때에는 월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넥타이 착용은 지성, 역능성, 진취성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금속테는 빨강색 넥타이와 함께 착용하였을 때 역능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뿔테는 노타이 차림이었을 때 진취성,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일반형 헤어스타일은 지성, 월소득 추론에서 긍정적으로,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은 진취성, 현시성, 매력성, 연령 추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젊은층은 캐주얼 차림과 함께 모자를 착용한 경우, 역능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야구모자는 매력성 지각에 도움이 되었으며 직업추론에서 기능/노무직을 연상시키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은 역능성, 진취성, 현시성 차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노년층의 경우 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지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월소득도 높게 추론되었다. 안경착용여부와 관계없이 회색 머리보다 검정색 머리가 더 젊게 지각되었으나 검정색 머리 염색으로 인해 젊게 지각되는 연령효과는 안경 착용자가 비착용자보다 2배 가량 더 효과적이었다. 회색 머리는 검정색 머리보다 옷차림에 관계없이 지성, 매력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지각

dCollection @ sungshin

되었고, 넥타이 착용은 월소득과 연령 추론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페도라에는 남색 넥타이를, 베레에는 빨강색 넥타이를, 모자를 쓰지 않을 때는 노타이 차림이 진취적이고 현대적으로 평가되었다. 페도라, 베레의 착용은 지성, 온유성, 현시성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베레의 경우는 월소득 추론에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안경과 남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회색 머리를 한 경우 타자극물보다 전문/고위직으로 추론되는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안경, 넥타이, 모자,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은 남성 정장 및 캐주얼 착용자의 인상형성 과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외적 단서로 그 디자인과 색의 변화에 따라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상형성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남성의 연령별 추구 이미지와 외모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물 제작에 있어 연령별 모델을 1명씩만 선정하고, 액세서리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아 특정 인물과 액세서리를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효과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얼굴 유형별 모델을 택하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함으로써 폭 넓은 인상평가를 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젊은층과 노년층 지각대상자가 동일인물의 연령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동일인물의 젊은층과 노년층을 제작한다면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dCollection @ sungshin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년층의 베레 착용이 지성, 온유성, 현시성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월소득 추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모자색과 지각자의 연령을 다양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또한 젊은층의 금속테 착용이 월소득 지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므로 금속테 착용에 따른 노령층의 인상형성 연구도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인 8-9월과 자극물의 의복이 계절적으로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았으며, 지각자를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대생으로 한정하였고 지각자 선정에 있어서 편의표집 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계층과 연령층 및 남성에게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모든 지각자는 자신의 특성, 배경, 상황 등과 같은 고유의 인지적 관점에 근거하여 지각대상자를 판단하고 추론을 개제하여 다분히 개인적 영향이 크므로 지각자의 다양한 인구통계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안경착용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안경착용에 대한 이미지 지각은 단순한 착용여부뿐만 아니라 지각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되는 안경착용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 또는 각자의 정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각자의 안경착용태도에 대한 다각적 조사와 그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여섯째, 같은 의복과 액세서리의 착용에서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인상평가가 달리 나타났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별 옷차림 선호도, 액세서리 디자인과 색의 변화 등을 고려한 액세서리 착용효과와 그 연출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dCollection @ sungshin

참 고 문 헌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5), pp.753-768.

강봉규 (1999). *심리학의 이해*. 서울: 동문사, pp.482-483.

강승희 (2005).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에 의한 남성 캐주얼웨어 이미지 지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개정판. 서울: 교문사, pp.42-50.

김경원, 탁혜령, 고애란 (2004). 의복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에서의 순서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7), pp.995-1006.

김선, 박보배, 박애선, 임선빈, 임혜숙 (1996). *심리학의 이해*. 서울: 집문당, pp.396-399.

김선기 (2007). *인터넷 패션잡화점 500만원으로 시작해 연봉 1억 벌기*. 서울: 길벗, p.123, p.139.

김영인, 강죽형, 김지선, 김지영, 김혜수, 박연주, 이민정, 한소원 (2001).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서울: 교문사, p.4.

김용숙, 전채령 (2007). 고등학생의 교복 변형과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pp.587-599.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pp.395-406.

김은실, 배수정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자 디자인의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55(3), pp.108-121.

김정희, 남기덕, 박영호, 송명자, 송인섭, 심응철, 윤가현, 윤영화, 이철원, 이

dCollection @ sungshin

현진 (1993).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p.394.

김재숙, 류지원 (2004). 헤어길이와 헤어컬러가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9/10), pp.1320-1328.

김현지 (2003). *남성 선거 입후보자의 옷차림이 유권자들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김혜동 (2007). 한국청년들의 안경 착용 실태에 관한 조사. *한국안광학회지*, 12(4), pp.1-4.

김희숙 (1995). 20세기 한국 여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2), pp.47-61.

남미우 (1992).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pp.311-326.

대한안경사협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2). 전국 안경 사용율 조사 보고서.

_____ (2005). 전국 안경 사용율 조사 보고서.

_____ (2008). 전국 안경 사용율 조사 보고서.

민윤기, 안권순 (2004). *심리학의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p.630.

류숙희, 류지은 (2001). 여성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각자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4), pp.639-650.

류지원, 김재숙 (2007). 남성 착용자의 의복 격식차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과 호감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한국미용학회지*, 13(3), pp.1330-1344.

박규원 (2005) 스포츠 마케팅에 투영된 상징적 디자인 표현물의 감성 연구: 스포츠 모자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1(4), pp.44-50.

dCollection @ sungshin

박길순, 김서연 (2005). 남성 패션에 나타난 메트로 섹슈얼 현상.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8(1), pp.30-40.

박숙현 (2007). *패션이미지 메이킹*. 서울: 예학사, p.137.

박순천, 이순홍 (2003).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중년 남성 정장디자인(제 2보). *한국의류학회지*, 27(11), pp.1260-1269.

박옥련, 이현지 (2004).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8(2), pp.364-375.

배현숙, 유태순 (2000). 노년층 여성의 의복 자아이미지와 선호디자인과의 관계. *복식*, 50(2), pp.151-165.

서미아, 이선희 (2000). 노년기 남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6), pp.864-570.

성남숙, 강경자 (2007). 스트라이프 넥타이의 색상과 톤면적비에 따른 남성복 착용자의 이미지 평가. *한국색채학회지*, 21, pp.35-50.

송선옥 (1999).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신소진 (1994).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신언모, 신인호, 박미화 (2002). *디자인은 생활 속에 있다*. 서울: 태학원, p.94.

신주동, 최종명 (2008). 대학생의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장신구 착장.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pp.723-731.

심준영, 김용숙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조부모의 의복이미지. *복식*, 51(7), pp.75-92.

안명숙, 장애란 (2002). *현대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예학사, p.157,

dCollection @ sungshin

p.171.

오세진, 김병선, 김재휘, 김정인, 김지호, 김청송, 김형일, 김효창, 박유진, 양돈규, 유제민, 이장한, 이재일, 임영식, 현명호 (2005).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pp.403-404.

유숙희 (2005). *남성정치인의 외모 이미지와 지각자 특성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유현주, 임영주, 황영미 (2001). *토털 뷰티 코디네이션*. 서울: 일진사, p.149.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윤영애 (2005). 액세서리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귀걸이의 재료와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뷰티학회지*, 3(3), pp.1-10.

이경손, 김희섭 (2000).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p.166, p.181, p.203, p.206.

이경희, 김윤경, 김애경 (2006).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교문사, p.123.

이명희 (2006). 액세서리 착용이 여성의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1)*, pp.1-12.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pp.1111-1121.

이명희, 송원영 (2006).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4(6), pp.945-955.

이선경 (1993). *남성복 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선경, 고애란 (1995a). 남성 의복착용자의 의복유형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 1보): 직업추론 및 의복인상을 중심으로. *한국의*

dCollection @ sungshin

류학회지, 19(2), pp.230-241.

_____ (1995b). 남성 의복착용자의 의복유형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 2보): 직업 관련 특성 및 외모 특성 추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4), pp.565-579.

이은미 (1992). *남성 정장 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은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이 미치는 영향: 남성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pp.197-210.

이은희, 전경란 (2001).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장신구 착용에 관한 연구: K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0(1), pp.113-126.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p.55.

이진희 (2002). 대학생의 모자 치수 인지도 및 선호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pp.301-306.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 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pp.312-320.

이현숙, 이정숙 (2002). *패션과 액세서리*. 서울: 신정, p.50.

이현정 (1996). *의복색 선호를 중심으로 한 남자 대학생의 패션관심도 및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혜진, 양진희 (2007). 남성 헤어 트랜드 경향이 지역별 남성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3(2), pp.609-619.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pp.340-351.

dCollection @ sungshin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양윤 (2002). *현대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p.168, pp.177-178.

임지영 (1996). *넥타이 무늬와 양복과의 배색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_____ (2007a). 컬러코디네이션 기법이 남성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 2보):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8), pp.1297-1309.

_____ (2007b).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방법에 따른 조화 영역과 부조화 영역. *복식*, 57(5), pp.183-195.

임지영, 강경자 (2005).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연구: 한난색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4), pp.632-645.

장애란, 안명숙, 박우미 (2000).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예학사, p.108.

장준영, 김대년, 최병진 (2007). 안경 구매행태와 안경 디자인. *한국안광학회지*, 12(4), pp.23-27.

전선정, 최혜정, 이귀영, 양선미, 문윤경 (1999). *토탈 코디네이션*. 서울: 청구문화사, p.231, p.233.

정수정 (1997). *안경 착용자의 안경 착용에 대한 이미지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수정, 정혜경, 김경희, 권혜진 (1999). 안경 착용자의 안경 착용에 대한 이미지 연구: Q-방법론적 접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2(1), pp.71-84.

정해선, 강경자 (2004a). 헤어스타일·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3/4), pp.460-471.

_____ (2004b).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이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2(3), pp.354-368.

조경희 (2006). 항공사 승무원의 신체적 매력성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dCollection @ sungshin

한국관광산업학회, 23, pp.197-228.

조긍호 (1986).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 *행동과학연구*, 8, pp.197-223.

조복희 (2002). *생활과학연구방법론*. 서울: 교문사, p.223.

조진아, 강근영, 이현주, 전연숙, 송승연 (2000). *토털 코디네이션*. 서울: 훈민사, p.113.

조현국, 문병연, 곽호원, 손정식, 김기홍, 유동식 (2006). 국내·외 안경제품들의 디자인 및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에 관한 조사. *한국안광학회지*, 11(3), pp.207-215.

최유진 (2003). *남성의 재킷, 셔츠, 넥타이 색의 변화가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최인려, 방혜경 (2006). *톡톡튀는 나만의 모자 만들기*. 서울: 교문사, p.25, p.27, p.31.

통계청 (2007).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

표유경 (2000). *야구 유니폼의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하경연 (2006).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한명숙 (2004). 남·여대학생의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선생님과 학생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11), pp.1404-1414.

한명숙, 하희정 (2003). 남·여 대학생의 「~답다」에 대한 성역할 지각에 관한 연구: 두발, 신발,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5), pp.767-777.

IRI색채연구소 (2003). *Color combination*. 서울: 영진닷컴, p.5.

dCollection @ sungshin

<외국 참고문헌>

Argyle, M. and Mchenry, R. (1971). Do spectacles really affect judgements of intellig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 pp.27-29, cited by Hellström, Äke and Tekle, Joseph (1994). Person perception through facial photographs: Effects of glasses, hair, and beard on judgment of occupation and personal qualit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pp.693-705.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pp.258-290.

Cash, T. F. (1990). Losing hair, losing points?: The effects of male pattern baldness on social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2), pp.154-167.

Chowdhary, U. (1988). Self-Esteem, age identification, and media exposure of the elderly and their relationship to fashionabi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1), pp.23-30.

Damhorst, M. L. (1985). Meanings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pp.39-48.

Davis, M. L. (1996). *Visual design in dress* (3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pp.144-145.

Elman, Donald (1977).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perception of masculine trai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3*, pp.157-158.

Feinman, S. and Gill, G. W. (1978). Sex difference in physical

dCollection @ sungshin

attractiveness preferenc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5, pp.43-52.

Feldon, L. (2002). *Does this make me look fat?: The definitive rules for dressing thin for every height, size, and shape.* New York: Villard Books, pp.183-184.

Form, W. H., and Stone, G. P. (1955). *The social significance of clothing in occupational life*. Michigan State College Ag. Exper. Station Bulletin, 247, cited by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07.

Hamid, P. N. (1968). Style of dress as a perceptual cue in impression form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6, pp.904-906, cited by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p.240-241.

Hellström, Äke and Tekle, Joseph (1994). Person perception through facial photographs: Effects of glasses, hair, and beard on judgment of occupation and personal qualit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pp.693-705.

Horn, M. J.,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p.195.

Hurlock, E. B.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 New York: Arno Press, 35-36.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p.240-241.

Kyle, D. J., and Mahler, H. I. M. (1996). The effects of hair color and

dCollection @ sungshin

cosmetic use on perceptions of a female's abil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3), pp.447-455.

Mitchell, M., Robert, B. (2004). Spectacle, distinctiveness, and face recognition: A web-based experiment. *CyberPsychology & Behavior, 7(1),* pp.113-117.

Molloy, J. T. (2005). *성공하는 남자의 옷차림: Dress for success.* (이진 역). 서울: (주)황금가지, pp.119-123.

O'Donnell, C., and Bruce, V. (2001). Familiarisation with faces selectively enhances sensitivity to changes made to the eye. *Perception*, 30(6), pp.755-764.

Panser, S. M., and Meindl, J. R. (1978). Length of hair and bearde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pp.1328-1330.

Peterson, K. and Curran, J. P. (1976). Trait attrac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 for hair style. *The Journal of Psychology*, 93, pp.331-339.

Pronchik, D. J., Sexton, J. D., Melanson, S. W., Patterson, J. W., and Heller, M. B. (1998). Does wearing a necktie influence patient perceptions of emergency department care?.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16(44), pp.541-543.

Rees, D. W., Williams, L., and Giles, H. (1974). Dress style and symbolic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gy,* 5, pp.1-7.

Terry, R. L., Krantz, J. H. (1993). Dimension of trait attributions associated with eyeglasses, men's facial hair and women's hair

dCollection @ sungshin

length.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21), pp.1757-1769.

Trüeb, R. M. (2005). Aging of hair.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4, pp.60-72.

Weiten, W. and Lloyd, M. A. (2006). *생활과 심리학: 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 (김정희, 강혜자, 이상빈, 박세영, 권혁철 역). 서울: (주)씨그마프레스, pp.167-168.

<Internet site>

강민혁 (2009, 3. 26). WBC 그 뒤, 대한민국 야구 신바람. *포커스신문사*. 자료검색일 2009, 3. 30, 자료출처 http://www.fnn.co.kr

강승민 (2008, 11. 9). 오바마의 또 하나의 경쟁력, 몸. *중앙선데이*. 자료검색일 2009, 3. 1, 자료출처 http://article.joins.com

김나연 (2008, 10. 30). 가을 멋쟁이는 더블 버튼 재킷: 추동 남성패션 트렌드.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08, 11. 28, 자료출처 http://www.heraldbiz.com

김대희 (2008, 7. 17). 줄리엣, 남성 주얼리 '페르소나 옴므' 출시. *CNBNEWS*. 자료검색일 2008, 11. 28, 자료출처 http://news.cnbnews.com

김수미(2008, 5. 6). 패션기고: 클래식한 스타일 연출땐 헌팅캡 딱. *파이낸셜뉴스*. 자료검색일 2009, 5. 15, 자료출처 http://www.fnnews.com

김수봉 (2007, 7. 29). 제 2회 fn 액티브 시니어 리빙. *파이낸셜뉴스*. 자료검색일 2008, 8. 1, 자료출처 http://www.fnnews.com

김영숙 (2008, 12. 22). 스타일: 겨울, 멋쟁이 남성을 위한 필수아이템. *스포츠서울*. 자료검색일 2009, 4. 10, 자료출처 http://www.sportsseoul.com

김윤희 (2009, 2. 8). 고시생 뿔테 안경은 이제 안녕.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09, 3. 1, 자료출처 http://media.daum.net

dCollection @ sungshin

김이지 (2008, 5. 30).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08, 6. 28, 자료출처 http://www.heraldbiz.com

김지영 (2009, 3. 9). 여성복만큼 화려하고 슬림해진 2009 S/S 남성복 트렌드.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09, 4. 10, 자료출처 http://news.mk.co.kr

남훈 (2008, 11. 19). 비즈니스 캐주얼 1편: 비즈니스 캐주얼도 나만의 상상력으로 맘껏 즐길 수 있다. *삼성매거진*. 자료검색일 2009, 3. 1, 자료출처 http://www.samsung.co.kr

네이버 두산 백과사전. 모자. 자료검색일 2008, 4. 7,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네이버 두산 백과사전. 볼러. 자료검색일 2009, 6. 3,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류재도 (2008, 1. 19). 변하지 않는 패션 법칙, '수트'의 코디법은?. *데일리 서프라이즈*. 자료검색일 2008, 6. 28, 자료출처 http://www.dailyseop.com

박수호 (2008, 7. 23). 고급 남성 정장시장이 뜬다. *매경이코노미*. 자료검색일 2008, 8. 10, 자료출처 http://news.mk.co.kr

박주광 (2005, 11. 10). 영국의 십대 문화 '챠브(Chav)'를 아시나요, *국민일보*. 자료검색일 2009, 5. 15, 자료주소 http://news.naver.com

박해영 (2008, 6. 30). 남성 액세서리 블루칩 부상.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08, 8. 10, 자료출처 http://channel.patzzi.joins.com

삼성전자 (2008, 9. 22). '비즈니스 캐주얼'로 근무복장 자율화. *뉴스와이어*. 자료검색일 2009, 3. 1, 자료출처 http://www.newswire.co.kr

송지혜 (2008, 11. 5). 패션의 톱: 여자들도 중절모 쓴다.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09, 4. 10, 자료출처 http://article.joins.com

안상미 (2008, 9. 24). 대기업 복장 자율화 바람. *한국경제*. 자료검색일 2009, 3. 1, 자료출처 http://www.hankyung.com

양홍주 (2007, 1. 4). 겨울철 운동은 저녁때가 좋아요. *한국일보*. 자료검색일

dCollection @ sungshin

2008, 6. 30, 자료출처 http://nadri.hankooki.com

유승남 (2008, 6. 12). 안경사용실태. *안경계.* 자료검색일 2008, 7. 10, 자료출처 http://www.optic.or.kr

육덕수 (2009, 5. 23). 불황 패션 아이템 '야구모자'가 최고에요!: 저렴한 티셔츠 패션에 맞춤 코디로 각광. *CBS 노컷뉴스.* 자료검색일 2009, 5. 23, 자료출처 http://www.cbs.co.kr

이건행 (2008, 7. 23). 어머니도 못 알아보게 하는 '아이웨어'의 힘. *주간동아,* 자료검색일 2008, 9. 1,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이경호, 홍미경 (2004, 12. 14). Cover story: 대기업 CEO. *이코노믹리뷰.* 자료검색일 2008, 5. 30,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이동훈 (2008, 7. 8). 넥타이를 풀어라 '쿨 비즈'가 뜬다. *위클리조선.* 자료검색일 2009, 3. 1, 자료출처 http://weekly.chosun.com

이유명 (2006, 11. 18). 모자 쓰면 비듬 생긴다고? '모자로 보는 건강'. *메디컬투데이.* 자료검색일 2008, 6. 30,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이정환 (2007, 9. 10). 뽀얀 피부에 흑진주 목걸이: 완소남의 필수 조건. *한경비즈니스.* 자료검색일 2008, 11. 28, 자료출처 http://www.prosumero.com

이지성 (2009, 3. 26). 쇼핑 파워고객으로 급부상한 남성들. *디지털 타임즈.* 자료검색일 2009, 3. 30, 자료출처 http://www.dt.co.kr

이혜진 (2009, 3. 25). 눈에 띄고 싶은 신사를 위한 eyewear collection. *신동아.* 자료검색일 2009, 5. 15,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임찬영 (2006, 12. 13). 노인성 백내장. *한경비즈니스.* 자료검색일 2008, 6. 30. 자료출처 http://www.kbizweek.com

정세진 (2007, 2. 3). 스타일/패션: 안경으로 '얼굴성형'해볼까. *동아닷컴.* 자료검색일 2008, 9. 10,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dCollection @ sungshin

최선임(2008, 10. 3). 스포티하게 입고'굿샷'모던하게 입고 '홀인원'.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09, 5. 15, 자료출처 http://www.heraldbiz.com

최정윤 (2006, 5. 11). 강동원 20.6cm, 이나영 19.8cm 정말 얼굴 작네. *TV리포트*. 자료검색일 2008, 5. 1, 자료출처 http://www.tvreport.co.kr

한국두피모발연구학회 (2006, 11. 15). 흰머리 언제부터 생기는 게 정상일까. 자료검색일 2008, 5. 30, 자료출처 http://www.trichology.co.kr

홍미경(2009, 3. 28). 봄철, 골퍼들에게 필요한 뷰티 노하우. *조이뉴스24*. 자료검색일 2009, 5. 15, 자료출처 http://joynews.inews24.com

황의건 (2006, 5. 12). 절제된 패션에 방점을 찍는다. *한경비즈니스*. 자료검색일 2008, 11. 28,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황재성 (2007, 7. 9). 직장에 부는 쿨 비즈 패션. *매일신문*. 자료검색일 2009, 3. 1, 자료출처 http://www.imaeil.com

G마켓. GUCCI GG1553-584 블랙 뿔테 안경. 자료검색일 2008, 6. 1, 자료출처 http://www.gmarket.co.kr

G마켓. 젬플라워 화이트 골드 남자 목걸이. 자료검색일 2008, 6. 1, 자료출처 http://www.gmarket.co.kr

11번가. CavinKlein CK860-090 금속테 안경. 자료검색일 2008, 6. 1, 자료출처 http://www.11st.co.kr

dCollection @ sungshin

ABSTRACT

A Study of Impression Formation According to Men's Accessories Wearing and Hairstyle

Won-Young Song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s and the interaction effects of impression formation according to the accessories and hairstyles worn by men of various ages, an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different inferences are made by the viewer, regarding monthly income, age, and occupation, as the result of each stimulus.

Measuring tools included a bust presenting men's accessories and hairstyles, questions to measure the responses of perceivers, and questions to measure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the perceivers. As stimuli, a total of 48 color photos were produced, which included 24 stimuli of younger men(18 full dress and 6 casual wear) and 24 stimuli of older men(18 full dress and 6 casual wear), which were a combination of different eyeglasses, neckties, hats, necklaces, and hairstyles.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used for the impression

dCollection @ sungshin

evaluation was composed of 33 questions and 7 bipolar adjectives. The subjects were 635 femal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SPSS,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reliability analysis, two-way analysis of variance,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four-way analysis of variance, Duncan multiple range test, one-sample 2 test,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from the factor analysis, six factors were derived in the aspects of impression formation of men's accessories and hairstyles, which were intelligence, empowerment, mildness, progressiveness, conspicuousness, and attractiveness.

Secon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ces of impression evaluation in relation to the eyeglasses, neckties, and hairstyles of younger men, the wearing of eyeglasses led to a high impression of intelligence and a low impression of mildness. It was evaluated that dark blue neckties have a high dimension of intelligence, red neckties have a high dimension of intelligence, empowerment, and youth, and no necktie has a high dimension of youth. "Normal" hairstyles had a high dimension of intelligence, while "sports" hairstyles had a high dimension of youth, conspicuousness, and attractiveness. In terms of interaction effects, metal rims on glasses had a high dimension of empowerment and attractiveness when a red necktie was worn, while horn-rimmed glasses had a high dimension of youth and conspicuousness when no necktie

dCollection @ sungshin

was worn. In addition, a "sports" hairstyle had a high dimension of youth, conspicuousness, and attractiveness when a red necktie was worn.

Thir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ces of impression evaluation in relation to the eyeglasses, neckties, and hair color of older men, it was found that eyeglasses and neckties had a high dimension of intelligence, while grey hair had a higher dimension of intelligence, empowerment, and attractiveness than black hair. In terms of interaction effects, mildness was higher when wearing eyeglasses without a necktie, and when wearing a dark blue necktie without eyeglasses.

Fourth, in investigating the differences of impression evaluation in relation to the neckties, hats, necklaces, and hairstyles of younger men, it was evaluated that wearing a cloche hat or baseball cap had a low dimension of empowerment, but baseball caps had a high dimension of attractiveness, while wearing a necklace had a high dimension of empowerment, youth, and conspicuousness. For older men, grey hair had a higher dimension of intelligence, mildness, and attractiveness than black hair. In addition, wearing a fedora or beret had a high dimension of intelligence, mildness, and conspicuousness, and in particular, wearing a fedora had a high dimension of attractiveness. In terms of interaction effects, youth and conspicuousness were evaluated to be high when a fedora was accompanied by a dark blue necktie, and when a beret was accompanied by a red necktie.

Fifth, when investigating the differences in terms of inferred age and

dCollection @ sungshin

monthly income in relation to the accessories and hairstyles of younger men, a higher monthly income was deduced for the men wearing metal rims, a younger age was inferred when no necktie was worn, and a "normal" hairstyle led to inferences of both a higher monthly income and an older age than a "sports" hairstyle. For older men, a higher monthly income was inferred when eyeglasses were worn, while wearing a necktie lead to an inference of a younger age. In regard to age differences relating to dyed hair coloring, as eyeglass wearers had twice a higher age effect than non-eyeglass wearers, for older men, it was found that colored black hair accompanied by eyeglasses was very effective in order to create a progressive perception. Older men wearing a fedora or beret were deduced to have a lower monthly income.

Sixth, in investigating the differences in deduced occupation in relation to the appearance of younger men, the men who wore a suit, metal-rimmed eyeglasses and a necktie with a "normal" hairstyle were deduced to be professionals, with high-ranking or white-collar jobs. It was found that when younger men wore a red necktie with a "sports" hairstyle and no eyeglasses, they were inferred to be engaged in a service job. Similarly, older men that wore a suit, glasses and a necktie with grey hair were inferred to be engaged in a professional or high-ranking job, while men wearing a cloche with grey hair were inferred to be jobless by a large portion of the participants. Interestingly, baseball cap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technical or labor service, both for older and younger men.

dCollection @ sungshin

Seventh, when the male image characteristic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intelligence, empowerment, mildness, youth, and conspicuousness, the preference of the viewer for the man's attire increased. An intelligent image in the attire of younger men, and a mild image in the attire of older men significantly affected preferences.

In global consideration of these results, eyeglasses reflected positively on the evaluation of the intelligence of both older and younger men, and on the inferred monthly income of older men. Younger men were perceived to be progressive when not wearing a necktie, while older men were perceived to be progressive when they wore a necktie. The wearing of a necklace by a younger man was perceived positively in terms of empowerment, youth, and conspicuousness, and led to an inference that the man was employed in a service job. When older men wore a fedora or a beret, intelligence, mildness, and conspicuousness were perceived positively, and these men were perceived as progressive and more modern when wearing a dark blue necktie with a fedora, when wearing a red necktie with a beret, and when not wearing a necktie without a hat. For older men, grey hair was evaluated to reflect higher intelligence and attractiveness than black hair, regardless of attire, and the wearing of eyeglasses and the coloring of hair by older men were very effective in order for them to be perceived as progressive. In addition, older men were highly likely to be inferred to have a professional or high-ranking job when they wore eyeglasses and a necktie, and had grey hair.

dCollection @ sungshin

Accordingly, as it has been found that both hairstyles and accessories such as eyeglasses, neckties, hats, or necklaces serve as an external motive that significantly affects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an impression of the wearer of a suit or casual wear, the accessories worn may lead to a different image, and have correlations. As impression evalu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age of the subject, it is suggested that subsequent studies research the effect of wearing accessories and the use methods of rendition that consider attire preferences, accessory design, and changes in color by age.

dCollection @ sungshin

<부록 2> 질문지

남성 외모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남성 외모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의 생각대로 대답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라도 빠질 시에는 통계처리가 불가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 대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8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송원영

지도교수 이명희

Ⅰ. 이미지 지각

다음 페이지는 남성의 외모 이미지를 나타내는 양극으로 된 형용사입니다.

각각의 형용사와 관련하여 아래쪽 사진의 옷과 액세서리 차림새를 살펴보고 **한 개의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응답 요령>

제시된 옷과 액세서리 차림새가 비사교적인 이미지에 비해 매우 사교적인 이미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1번에 표(√) 합니다.

	매우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사교적인	1√	2	3	4	5	6	7	비사교적인

<사진번호= 사진 >

	매우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중후한	1	2	3	4	5	6	7	경박한
2. 지성적인	1	2	3	4	5	6	7	비지성적인
3. 개성있는	1	2	3	4	5	6	7	개성없는
4. 강한	1	2	3	4	5	6	7	약한

dCollection @ sungshin

	매우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5. 세련된	1	2	3	4	5	6	7	촌스러운
6. 젊어 보이는	1	2	3	4	5	6	7	늙어 보이는
7. 따뜻한	1	2	3	4	5	6	7	차가운
8. 논리적인	1	2	3	4	5	6	7	비논리적인
9. 독특한	1	2	3	4	5	6	7	평범한
10. 책임감있는	1	2	3	4	5	6	7	책임감없는
11. 보기 좋은	1	2	3	4	5	6	7	보기 싫은
12. 매력있는	1	2	3	4	5	6	7	매력없는
13. 현대적인	1	2	3	4	5	6	7	고전적인
14. 편안한	1	2	3	4	5	6	7	불편한
15. 부드러운	1	2	3	4	5	6	7	거친
16. 이성적인	1	2	3	4	5	6	7	감성적인
17. 건강한	1	2	3	4	5	6	7	건강하지 않은
18. 성공적인	1	2	3	4	5	6	7	성공적이지 않은
19. 자신감있는	1	2	3	4	5	6	7	자신감없는
20. 적극적인	1	2	3	4	5	6	7	소극적인
21. 친절한	1	2	3	4	5	6	7	불친절한
22. 내가 좋아하는	1	2	3	4	5	6	7	내가 싫어하는
23. 활동적인	1	2	3	4	5	6	7	비활동적인
24. 온화한	1	2	3	4	5	6	7	온화하지 않은
25. 눈에 띄는	1	2	3	4	5	6	7	눈에 띄지 않은
26. 예리한	1	2	3	4	5	6	7	둔한
27. 대담한	1	2	3	4	5	6	7	소심한
28. 힘있는	1	2	3	4	5	6	7	힘없는
29. 어울리는	1	2	3	4	5	6	7	어울리지 않은
30. 용감한	1	2	3	4	5	6	7	겁이 많은
31. 진보적인	1	2	3	4	5	6	7	보수적인
32. 성실한	1	2	3	4	5	6	7	불성실한

dCollection @ sungshin

	매우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33. 호감이 가는	1	2	3	4	5	6	7	호감이 가지 않는
34. 멋있는	1	2	3	4	5	6	7	멋없는
35. 고지식한	1	2	3	4	5	6	7	고지식하지 않은
36. 감수성 있는	1	2	3	4	5	6	7	무뚝뚝한

Ⅱ. 이 사진 인물은 **몇 살**로 보입니까?
연령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세

Ⅲ. 이 사진 인물은 **직업**이 무엇이라 추측됩니까?
하나만 표(√)하여 주십시오.
① 전문직, 고위 관리직(　　)　② 일반 사무직(　　)
③ 서비스, 판매직(　　)　④ 기능직(　　)
⑤ 단순노무직(　　)　⑥ 무직(　　)
⑦ 기타 (기입 하십시오_____)

Ⅳ. 이 사진 인물의 **월소득**은 어느 정도라 생각됩니까?
하나만 표(√)하여 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

Ⅴ. 귀하는 외출 시, 안경을 **1주일에 평균 몇 회** 착용하십니까? (**콘텍트렌즈, 선글라스는 제외**)
①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　　)　② 주 1-2회 착용한다 (　　)
③ 주 3-4회 착용한다(　　)　④ 주 5-6회 착용한다 (　　)
⑤ 외출 시 항상 착용한다(　　)

Ⅵ. **귀하의 나이**는? **만**(　　)세

dCollection @ sungshin

dCollection @ sungshin